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January 2021
Vol.349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2021-2022 시즌 프로그램

반갑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변원탄 회장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부산에서 즐기는 아세안의 문화
아세안 문화원

제571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
NEW YEAR'S CONCERT 2021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21.

1.14 THU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15 FRI 7:30 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라벨 • 볼레로 (축소버전, 최수열 편곡)
Ravel • Boléro, M.81

모차르트 •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Mozart • Concerto for Two Pianos in E flat major, K.365

차이콥스키 • 현을 위한 세레나데
Tchaikovsky • Serenade for Strings in C major, Op.48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피아노 이경숙 Kyung-Sook Lee, Piano
김규연 Kyu Yeon Kim, Piano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116~7(정기회원)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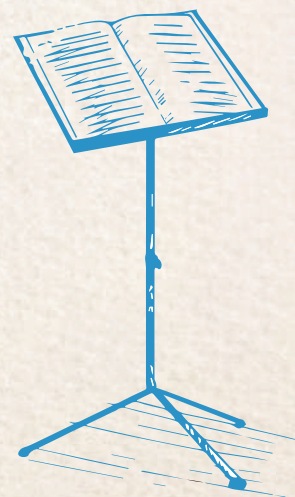
BPO OPEN REHEARSAL CONCERT

2021. **1.12** Tue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차이콥스키 · 현을 위한 세레나데
Tchaikovsky · Serenade for Strings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극장장의 손편지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재)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회원 및 관객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바라고 바라는 바,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일상을 회복하고 다복한 한해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의 회고

제가 (재)부산문화회관 제2대 대표로 부임한지도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니 그 730일은 '성과와 부족함'이 공존한 시기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예술감독 자리에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 공모제가 아닌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썼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예술인이 부족하다는 질책도 들었습니다. 공연 서비스의 선진화된 방식인 시즌제를 도입하여 콘텐츠의 가치와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으나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관객 성과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역예술의 비중을 높이고 문화회관의 예술적 미래 지향성을 제시하고자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을 신설했으나 '미래 지향의 콘텐츠'와 '축제성'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시대에 대비하고자 공연의 장르별 균형과 DB마케팅의 기반이 되는 회원 모집에도 주력하였으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직의 화학적 결합을 강조했으나 성숙되지 않은 노사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모두가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한 성과를 보기에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니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할 과제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도전과 과제

코로나19 사태로 일관된 2020년엔 공연장도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당황스런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문화향유가 가급적 중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했습니다. 시립예술단과 지역 예술인들은 비대면 공연이라도 흔쾌히 나섰습니다. 취소될 위기에 처한 기획공연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해보면서, 점차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교향악단의 리허설과 단원들의 안방 연주를 모아 동시에 중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런데 처음엔 호기심으로 접속하던 관객들이 점차 시들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공연들이 온라인으로 쏟아지고 부산에서도 그런 공연들을 볼 수 있게 되니 그럴 법도 했지요.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음향 기술과 연출의 문제도 녹록치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콘텐츠의 경쟁력과 함께 기술 인프라도 잘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고객서비스 부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린 한해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평가차 부산시에서 진행한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문화회관이 전년도의 총 평균 86점대에서 90점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보통 고객만족도는 급격하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법인데 그만큼 저희 문화회관이 고객서비스 중심의 조직개편(시민회관본부에서 고객서비스본부로)과 공연시즌제 도입, 좋은 예술감독의 초빙, 고객 DB를 기반으로 한 1:1 마케팅 강화, 고객지원센터 개소 등이 이러한 성과의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공공의 적에 모두 힘을 합쳐 대응하다보니 내부의 결속이 그만큼은 단단해졌을까요. 2021년 사업계획서를 특별로 받아 본 결과 직원들의 기획력 즉, 시대를 읽는 안목과 대응력도 보다 발전했음을 느낍니다.

2021년은 한걸음 진전된 '공존'

2021년 부산문화회관의 테마는 '공존'입니다. 우선 공연 및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방향은 '부산과 세계의 공존'입니다. 세계적인 공연도 선보이되 부산 지역의 예술도 무대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일이지만 이번에는 그 내용에서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드리며 지역예술의 성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서양예술과 한국예술의 공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예술적 사유와 공연 양식의 공존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경험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가운데 문화회관은 순수예술을, 시민회관은 대중예술을 중심으로 공존할 것입니다.

공연과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서비스 방식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의 공존을 모색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어서도 그렇고, 그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비대면 방식은 어떤 식으로든 같이 갈 것입니다. 오프라인 매체와 모바일의 공존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바일로 손쉽게 프로그램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티켓예매는 물론 공연장 입장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의 공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순응만해서는 공존이 어렵겠지요. 그럴수록 어려움을 떨치고 함께 손을 잡을수록 공존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대학과 기관, 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대와 공존의 틀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화학적 결합을 위한 노(勞)와 사(社), 노와 노의 공존을 더욱 다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 일상 속에서 예술이 공존하는 것이 으뜸이겠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서로 멀어진 시민의 마음과 마음을 예술로 잇는 것입니다. 예술이 갖는 본질적 가치를 지렛대로 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의 공존이 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마음이 저희 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과 공존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한해, 다양한 대면/비대면 공연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문화예술의 따뜻한 울림으로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부산시립예술단 비상임 예능단원 채용 안내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이끌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부산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행정지원팀 (051)607-3107

채용분야

채용분야	인원	모집부문	비고	
비 상 임	국악관현악단	5명	피리(태평소), 해금, 아쟁, 양금(타악), 신디사이저	위촉일로부터 11개월 근무
	합창단	5명	소프라노, 알토	
	무용단	4명	무용수	
	극단	10명	배우	

전형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접수기간	모집부문	전형 장소	합격자발표	
2020.11.24. ~ 12.14. (21일간)	2020.12.7. ~ 12.14. (8일간) ※ 접수마감	실기전형	교향	2021.1.7. 10:00 ~	중극장	미정
		면접전형		추후 공고	미정	
2020.12.14. ~ 2021.1.4. (22일간)	2020.12.28. ~ 2021.1.4. 16:00 (8일간)	실기 전형	극단	2021.1.12. 10:00 ~	챔버홀	2021.1.18. 17:00
			국악	2021.1.13. 10:00 ~	국악 연습실	
			합창	2021.1.14. 10:00 ~	합창 연습실	
			무용	2021.1.15. 13:00 ~	중극장	
		면접전형	2021.1.20. 10:00 ~	부산문화회관 회의실(예정)	2021.1.27. 17:00	

※ 서류접수 마감시간: 2021.1.4. 16:00까지이며, 이후 시간은 접수되지 않음

※ 교향악단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전형일정 연기

※ 전형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예술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 알림)

접수방법

- (재)부산문화회관 인터넷 채용사이트(<https://bscc.saramin.co.kr>) 접수
- 2020.12.28.(월) ~ 2021.1.4.(월) 16:00까지 접수 ※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불가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항목별 채용사이트 입력
※ 자유곡 등 악보제출이 필요한 경우 채용사이트에 PDF형식으로 첨부 제출
단, 무용단, 극단 응시자의 경우 음악CD 전형 당일 제출
- 증빙서류 : 실기전형 통과 시 면접전형 당일 제출
※ 주요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됨
 - ①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기재된 것)
 - ② 학위증서(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사본 제출
 - ③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
 - ④ 각종 증빙자료 및 첨부자료 등
※ 정확한 공고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조대 January 2021 Vol.349

2021년 1월호 통권 349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0년 12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 04 **신년사**
- 08 **Column**
삶은 계속되고, 막은 오른다
- 10 **신년계획**
(재)부산문화회관 2021-2022 시즌프로그램
부산시립예술단 2021년 신년계획
- 30 **반갑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변원탄 회장
- 32 **골목에서 만나다.생활 속 문화공간**
부산에서 즐기는 아세안의 문화
'아세안 문화원'
- 34 **Academy Class**
현대음악 : 코로나19로부터의 울림들
- 36 **Issue**
2021년 부울경 미술대학 예비작가 초청전시
- 39 **Preview**
- 40 **Review**
- 44 **Program Guide**
- 48 **New Book**
- 49 **BSCC News**
- 50 **박대리의 24시**
(재)부산문화회관의 간판 '공연기획팀'의 하루
- 52 **Competition**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가 함께하는
제1회 부산청소년 및 시민 공연감상문 공모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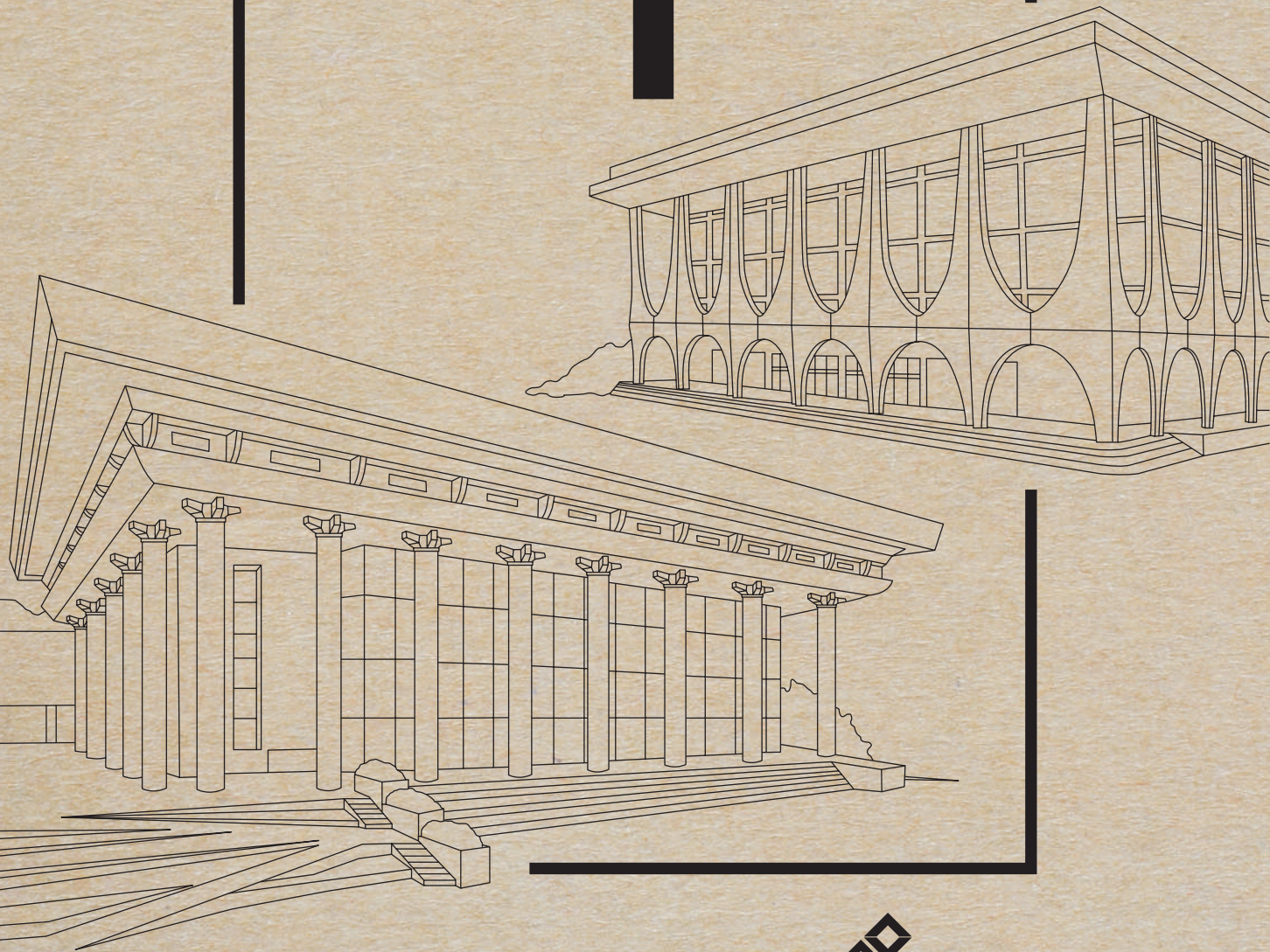
BSCC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2021 JANUARY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 월간 공연 & 전시 일정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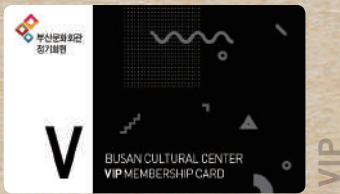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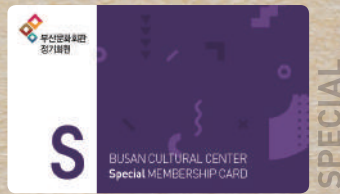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116~7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조기마감)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SUN	MON	TUE	W
<p>3</p> <p>‘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무관</p>	<p>4</p> <p>부산서화회 회원전 1월 6일(화)-1월 10일(일) 제1전시실 부산서화회 010-3836-3302</p> <p>부산시민회관 전시실</p>		
		<p>5</p>	
<p>10</p>	<p>11</p>	<p>12</p> <p>◆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19:30 대 전석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1</p>
<p>17</p>	<p>18</p>	<p>19</p> <p>장한별 피아노 독주회 15:00 첼 전석 1만원/장한별(010-6565-1962)</p>	<p>2</p>
<p>24</p> <p>31</p> <p>트리오 피아제 후원의 밤 17:00 대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25</p>	<p>26</p> <p>◆ 부산시민회관 백스테이지 투어 14:00 대 (재)부산문화회관(630-5235)</p>	<p>2</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1	2
6	7	8	9
		부산체임버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19:30 [중]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010-6295-8552)	
13	14	15	16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1회 정기연주회 '2021 신년음악회' 19:30 [대]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1회 정기연주회 '2021 신년음악회' 19:30 [대]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제8회 황미리 플루트 독주회 17:00 [캠] 초대/황미리(010-9371-8987)
20	21	22	23
	2020 제11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갈라콘서트 '몬체르토 컴피티션' 19:30 [대]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4)	2021년 라이온스 신년음악회 18:00 [대] 국제라이온스협회355-A부산(642-3606)	
27	28	29	30
			송대현 귀국 피아노 독주회 15:30 [캠] 송대현(010-6295-3023)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삶은 계속되고, 막은 오른다

Life goes on,
The show must go on

정봉석 본지 편집위원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2021, 신축년(辛丑年) 새해에 거는 소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다. 지난 1년 내내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일상의 질서를 흡수해버린 까닭이다. 익숙하던 삶의 시간이 한순간에 정지되고 비대면의 우울한 시간이 세상을 덮어버렸다. 일순간 공황상태에 직면했으나 침착하고 빠른 대응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미래학자들은 서둘러 뉴 노멀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였고, 랜선 접속의 스튜디오에서는 트로트 열풍이 이어졌다. 하지만 2차, 3차 대유행이 반복될수록 피로감도 극도로 쌓여갔다. '트로트 노이로제'라는 말이 생겨나고, 백신이라는 희망과 고문이 반복되는 동안 2020년이 저물었다. 일상의 시간을 삼켜버린 시련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마치 자식들을 잡아먹은 크로노스(cronos)의 시간처럼. 한해가 바뀌어도 우리는 우라노스의 아들이자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는 듯하다.

크로노스는 카오스의 자손이다. 카오스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낳고, 가이아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낳으나, 우라노스는 가이아와 결합하여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 사이에 티탄 12남매와 키클롭스 3형제와 헤카톤케이레스 3형제가 생겨나는데, 우라노스는 자식들을 모두 타르타로스(가이아의 자궁 또는 연옥)에 가두어버린다. 자식들에게 내몰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복수를 결심한 가이아는 은밀히 낫을 마련하고, 티탄 신족의 막내인 크로노스만이 그 뜻을 받들어 우라노스의 남근을 잘라 버린다. 그로써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갇혀 있던 크로노스의 형제들이 해방되면서 신들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한편 인류의 시간은 제우스로부터 시작된다. 우라노스를 물리친 크로노스는 같은 티탄 신족인 레아와 결혼하여 헤스티아, 헤라, 데메테르 3녀와 포세이돈, 하데스, 제우스 3남을 차례대로 낳았다. 그러나 크로노스 또한 자식 중 한 명에게 지배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신탁이 두려워 자식이 태어나는 족족 집어삼켜버린다. 이에 상심한 레아는 막내아들 제우스를 낳는 즉시 어머니 가이아에게 빼돌리고 대신 돌덩이를 강보에 싸놓았는데, 이를 모르는 크로노스는 돌덩이를 자식인줄 알고 집어삼킨다. 크로노스 몰래 크레타 섬의 님프 손에 맡겨진 제우스는 장성하여 지혜의 여신 메티스와 첫 번째 결혼을 하고, 부인의 도움으로 토하는 약을 구해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먹인다. 그로 인해 크로노스는 자식들을 토해내는데, 이때 삼켜졌던 역순으로 형제들이 다시 태어나면서 제우스의 동생이 된다. 제우스는 형제들과 힘을 합쳐 10년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크로노스를 타르타로스에 가두어버렸다. 이로써 제우스가 올림포스의 제왕이 되고, 인류의 시간이 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chronos)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프랑스의 철학자 들뢰즈는 객관적이고 순차적인 시간인 'chronos'와 대비하여 자식을 집어삼킨 'Cronos'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혼재하는 주관적 시간이란 의미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다소 장황해졌지만 이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바는 간단하다. 제우스의 등장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종식되었듯이, 백신이 안정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는 이 혼돈의 시간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조금 더 긴 호흡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이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디보다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있는 분야는 예술계가 아닐까싶다. 그중에서도 대사와 행위로써 소통해야 하는 연극 분야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연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극장 문을 닫아야만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20년은 '연극의 해'였다.

1991년에 처음으로 '연극·영화의 해'가 시행되었던 이래, 작년에 서른 번째로 연극 장르 단독의 해가 돌아왔다. 그에 따라 연극계에서는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다양한 연극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 즈음 부산의 연극인들 몇이 '아름다운 연극상 모임'을 결성하고는 제1회 수상자로 강원재 대표를 선정한 바



있다. 당시 그가 운영해오던 청춘나비소극장이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던 것을 격려하는 의미가 컸었다. 부산소극장연극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강원재 대표는 그에 힘입어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소극장 문제를 놓고 부산시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작년 새해 벽두부터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연극인들의 의지가 움트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 모든 움직임을 한꺼번에 집어삼킬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눈 위에 서리 내린 격이 아닐 수 없다.

들뢰즈의 'Cronos'처럼 혼재하는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말에 카이로스(kairos)가 있다. 카이로스는 지난 연말에 방영된 TV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한데, 혼돈의 시간이란 뜻 이외에 기회의 신으로도 유명하다. 그 형상은 앞몸에다가 어깨와 발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고, 머리의 앞쪽에는 머리카락이 무성하지만 뒤쪽은 민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재미있다. 기회의 신이 벌거벗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며,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뜻이다. 반면에 어깨와 두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기 위함이며, 뒤통수가 민머리인 것은 지나가면 다시는 잡기 어려움을 뜻한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비극작가 이온은 카이로스를 크로노스의 막내아들로 설정하고 있다. 크로노스의 막내아들이 제우스이든 카이로스든 간에 여하튼 혼돈의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도래하기 마련이다. 지금은 설상가상의 형국이지만, 따지고 보면 연극계에 언제 한 번이라도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 매 순간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연극인들이 입버릇처럼 외쳐오던 말로 새해 인사를 대신 전해본다.

“그래도 막은 오른다!”

신년계획
+

(재)부산문화회관
2021-2022
시즌 프로그램

강선옥 (재)부산문화회관 공연기획팀장

부산을 품다,
세상을 잇다.
예술로 함께 하다



Ctrl+Z의 시대, 시즌 공연을 기획한다는 것은

2020년 12월 4일, 글로벌 SNS기업인 트위터(Twitter)가 자사 공식 계정으로 '2020년을 한 단어로(2020 in one word)'라는 제안을 던졌다. 수많은 글로벌 IT기업들이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저마다의 사정이 담긴 트윗을 하는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끌었던 답글은 어도비(Adobe)의 "Ctrl+Z". 컴퓨터에서 방금 입력한 명령의 '실행 취소'를 뜻하는 이 단축키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계획이나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취소되어야 했던 올해의 상황을 잘 풍자해 가장 많은 리트윗과 '좋아요'를 기록했다. Ctrl+Z는 공연장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2020년 한해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수많은 공연들이 취소되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의 기세가 드세고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Ctrl+Z의 명령어가 작동하는 지금, 2021-22 시즌의 한 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둠 속 모르는 길을 더듬어 가는 만큼이나 막연하면서도 힘든 일일 것이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 환경을 섬세하게 감지할 수 있는 촉수와, 어둠 속에서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이다.



부산을 품다, 세상을 잇다, 예술로 함께 하다

(재)부산문화회관은 2019년부터 시즌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 개관을 대비한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장르 간 균형, 자체 제작공연의 확대, 지역예술의 수용과 확장에 포커스를 맞춰왔다. 2021-22 시즌 프로그램은 이러한 방향을 고수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문화예술 환경에 섬세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특히 주목한 키워드는 공존, 배려, 소통이다. 코로나19와의 공존, 대면과 비대면의 공존, 지역예술과 시민접근성에 대한 배려, 거리두기와 단절을 잇는 예술적 소통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공 방식을 비대면 온라인 중계뿐만 아니라 시네마 라이브(Cinema Live)형 공연실황 상영 등으로 다변화하고, 자체 제작 공연과 지역 우수공연 초청 시리즈,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등을 통해 코로나 상황 이후 더욱 어려워진 지역 예술을 보듬고자 한다. 더불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최고 수준의 공연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언택트(Untact) 시대의 격리와 소외를 예술의 진정성과 온기로 촘촘히 이어가고자 한다.

대면과 비대면의 공존, 콘텐츠 제공 방식의 다변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던 지난 해 3월부터 <배시시 콘서트 On Live> 등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 제공을 시도해 온 (재)부산문화회관은 올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 제공 방식의 다변화를 모색한다. 먼저 <2021 배시시 프로덕션 온택트 BSCC Production Ontact>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온라인 공연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예술아카데미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연극 장르의 <NT-Live>에 머물던 시네마 라이브형 공연실황 상영을 올리는 오페라, 뮤지컬, 무용 장르까지 확대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공연실황을 스크린으로 상영할 계획이다(4월-12월).

특히, 오페라 장르의 경우 2023년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에 대비한 관객개발 시리즈로, 세계 각국의 유명 오페라극장과 페스티벌의 작품을 작곡가별로 큐레이션해 <BSCC 시네오페라 초이스 Cine Opera Choice>라는 타이틀로 2021년 베르디 편, 2022년 푸치니 편, 2023년 모차르트 편에 걸쳐 장기 기획해 상영할 예정이다. 또한, 여러가지문제연구소 김정운 소장(문화심리학),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미술사학) 등 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저명 강사들을 초청해 강연형 콘서트 <BSCC 인문학+콘서트: 향연> 시리즈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객들에게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인문학의 지혜와 가치를 공유하고자 한다.



지역 예술의 수용과 확대: 자체 제작과 지역 우수공연 초청 시리즈

2019년 연극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시작으로 지역 공연예술계의 역량을 결집해 자체 제작을 꾸준히 시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무용공연 <MOTI/어디로부터>(9월)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10월)을 제작한다. 부산시립무용단 이정운 예술감독과 부산시립관현악단 김종욱 상임지휘자가 참여하는 <MOTI/어디로부터>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부산 지역의 무용인들과 국악 연주자들을 출연진으로 대거 선발할 예정이며, 전 광주시립 오페라단 예술감독 정갑균 연출로 제작되는 <피가로의 결혼>은 주·조역 성악가,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전 출연진이 부산 지역 예술인들로 구성된다. 또한 '2021 지역 우수공연 초청 시리즈'로는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페스티벌, 캐나다 시나르페스티벌에 이어 미국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한 그루잠프로덕션의 <스냅 SNAP>(5월)과 2019년 작강연극제 수상작인 극단 배우창고의 <단편소설집>(12월)을 통해 지역예술의 저력과 경쟁력을 증명하고자 한다.

연극, 무용, 국악 등 장르 간 균형 있는 기획도 꾸준히

지역의 대표 공공극장으로서 지역 공연예술계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부산 문화계 지형 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장르의 관객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적 노력도 계속된다. 연극 장르에서는 셰익스피어 고전의 한국적 재해석으로 손꼽히는 양정웅 연출의 <십이야>(9월),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을 그린 배우 김명곤 출연의 <흑백다방>(10월) 등이 지역 관객들에게 정교한 연출의 힘과 밀도감 있는 배우들의 열연을 선사한다. 무용 장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프랑스 파리의 페아트르 드 라빌(파리시립극장) 및 리옹댄스비인날레 공동제작 작품인 안은미 안무의 <A 드래곤>(11월)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거침없는 움직임이 무대 위에 펼쳐낸다. 뿐만 아니라, 국악 장르에서는 전국 팔도 핫한 탈꾼들이 제대로 보여주는 탈춤판 <가장 무도>와 국악기와 양악기의 혼용을 통해 지금껏 세상 어디에도 없던 압도적인 감흥을 들려주는 <잠비나이 콘서트>가 국악계의 전통과 새로운 흐름을 소개할 것이다.



A 드래곤



조수미 & 이 무지치 | Musici

클래식 음악의 마스터즈 시리즈

클래식 음악을 위해서는 국내외 최고 마스터들의 연주를 엄선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 임동민·임동혁이 데뷔 후 첫 듀오 무대를 통해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판타지’,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등을 들려주며(3월), 세계 최정상급의 두 오케스트라인 빈필과 베를린필의 제1악장 및 수석 등으로 구성된 <비엔나-베를린 챔버오케스트라>가 내한해 우아하고 고결한 빈필의 사운드와 매혹적이고 정열적인 베를린필의 사운드가 만나는 궁극의 경지를 선사한다(6월). 또한, 러시아 마린스키극장의 주·조역 성악가를 비롯해 합창단, 상트페테르부르크 뮤직홀의 오케스트라, 산마라극장의 발레단 등 200여 명이 출연하는 초대형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 공 Prince Igor>이 장대한 러시아 오페라의 진수를 전하며(11월), 소프라노 조수미가 세계적인 실내악단 이 무지치(I Musici)와 함께 부산을 찾아 바로크 음악을 통해 국제무대 데뷔 35주년을 기념하는 투어 무대를 가진다(12월).

콘서트와 뮤지컬, 시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대중·시민친화적 장르의 공연으로 공연장 특성화를 모색하는 부산시민회관을 중심으로 시민 접근성이 높은 콘서트와 뮤지컬의 비중을 강화한다. 뉴에이지의 거장 이자 피아노의 음유시인 유키 구라모토가 4인조 콰르텟과 함께 듣는 이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선율을 들려주며(5월), 90년대 콘서트 무대의 히어로 홍경민, 김종서, 왁스, 이세준의 <썸머나이트 콘서트>가 추억의 명곡과 함께 즐거운 토크를 통해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식히는 힐링 콘서트를 선사한다(8월). 또한 고품격 풀편성 오케스트라와 디즈니 오리지널 싱어즈의 <2021 디즈니 인 콘서트>가 대형 스크린의 애니메이션과 함께 디즈니의 꿈과 희망을 전하며(8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는 한 천재음악가가 열등감과 트라우마를 딛고 재기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디즈니 인 콘서트

보다 풍성해진 어린이·가족·청소년 프로그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어린이전문극장 사랑채극장에서의 공연뿐만 아니라, 뮤지컬, 아이스발레,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어린이 및 가족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먼저,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가 어린이 뮤지컬로 찾아와 판타스틱한 모험의 세계를 선사하며(6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을 뮤지컬로 만든 <알사탕>이 원작 그 이상의 감동을 그려낸다(7월). 또한, 피겨 스케이팅의 유려한 테크닉에 고전 발레의 우아함을 더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여름방학을 맞은 가족 관객들에게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전하며, 2015년 초연 이후 꾸준한 호평과 함께 서울, 대전 등지에서 공연되어 온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은 무한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일상과 우정을 다루며 10대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한다(9월).

페스티벌과 축제, 예술적 지향과 시민 문화향유의 의지를 담다

시즌 공연 외에도 다양한 축제와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 공연예술에 대한 미래적 지향과 시민 문화향유에 대한 의지를 담는다. 2021-22 시즌 기간 동안 부산문화회관과 시민회관에서 개최될 축제와 페스티벌은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시민뜨락축제>. 2019년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을 모토로 출범한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은 격년 개최, 최우수작 차년도 (재)부산문화회관 시즌 초청 등의 차별화된 포맷으로 지역 공연예술계에 혁신성과 실험성을 갖춘 창·제작을 장려하며 신진예술인을 위한 본격적인 등용문이 되었다. 올해는 개최 시기를 8월로 옮기고 지역 쿼터(지역예술단체 70% 이상 선정)를 유지한 전국 공모와 초청을 병행해 참가작들의 내용성과 다양성을 보강하며 시민들을 위한 한여름의 공연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2017년 재단 출범 이후 매년 봄·가을 시민회관 야외무대에서 개최되어 온 <시민뜨락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중공연예술 장르 중심으로 지역예술단체를 공모해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를 만들어 갈 예정이며,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2022년 1월로 개최 시기를 옮겨 한겨울에 듣는 정통 실내악의 묘미와 음악적 감동으로 지역 음악인들과 시민들이 하나되는 자리는 마련한다.



2020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020 시민뜨락축제

티켓 오픈과 패키지 할인은 코로나 맞춤형으로

1~2주 단위로 거리두기의 단계가 조정되고 내일 있을 공연이 오늘 취소되기도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With Corona). 지난 한 해 수많은 공연들의 Ctrl+Z로 적잖은 피로감이 누적되었지만 시즌 프로그램이 관객들에게 주는 최대 잇점이자 메리트인 티켓 선오픈과 패키지 할인은 코로나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코로나 시대를 위한 맞춤형으로 진화해, 티켓 오픈은 매 2개월 단위로 진행하고, 패키지는 전화접수 후 티켓 오픈시마다 좌석지정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확실한 일정 때문에 아직 시즌에 편입되지 못한 미지의 공연들이 히든 카드처럼 미완의 시즌을 완성해갈 것이다. 전대미문의 팬데믹인 만큼 전대미문의 시즌제 운영 방식이 나온다. 그러나, 관객의, 관객에 의한, 관객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로서의 공연 서비스만큼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티켓 오픈은 1월 12일(화) 오후 2시, 그리하여 (재)부산문화회관의 시즌은 계속되는 것이다. The show must go on!

시민의 일상으로 찾아갑니다
부산시립예술단

Season Program 2021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한해는 각종 공연, 전시가 잇달아 취소되고 공연장이 휴관과 재개관을 거듭하면서 문화계가 한 때 마비되다시피 했다. 최근 예술감독 선임을 위한 전문가 추천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큰 변화를 시도했던 부산시립예술단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공연들이 취소, 변경되면서 크나큰 아쉬움을 남겼다. 코로나19 종식이라는 큰 희망을 안고 2021년을 시작하는 부산시립예술단은 올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친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부산시립예술단은 1월 14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총 64건, 100여 회의 정기, 특별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시민들과 지역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단체별 슬로건을 정하고 각 단체의 비전에 맞는 예술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를 늘리고, 기량이 뛰어난 부산시립예술단 단원과 부산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스타프로젝트’와 부산시립예술단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 창출을 위한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미래 관객개발을 위한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꿈꾸는 예술학교’ 공연 등 시민의 일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특별한 무대를 구상하고 있다.

‘스타프로젝트’는 부산시립예술단 단원 중 숨은 인재를 찾아 시민 속으로 더욱 다가가기 위한 기획으로 예술단의 5개 상임단체가 단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연합공연으로는 부산시립예술단 6개 단체 200여 명이 참여하는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초대형 융복합 공연으로 선보여 부산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2021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슬로건은 ‘균형(balance)’과 ‘정돈(clearance)’. 세계 각지의 작곡가들이 쓴 고전부터 현대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우선 장기 프로젝트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곡 사이클’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진행되며, 2017-2019 장기프로젝트로 진행되었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을 업그레이드한 또다른 프로젝트 ‘슈트라우스 어게인!’을 선보인다. 특히 2021년 올해부터는 능력있는 예술가를 선정하여 한 해동안 협업을 진행하는 ‘올해의 예술가(Artist-in-Residence)’ 제도를 도입한다.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는 뉴욕필하모닉, LA필하모닉 등 세계 주요 교향악단과의 협업으로 유명한 작곡가 김택수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불발로 그친 부산을

모티브로 한 그의 창작곡 ‘짚!!’ 초연과 개작초연작품 ‘플래시!!’ 무대를 연다. 이밖에도 세대를 아우르는 뛰어난 기량의 연주자들도 올 한해 부산을 찾아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고전에서 현대까지, 다채로운 합창세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부산시립합창단은 2021년 올 한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합창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두차례 마련된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에서는 안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이상길 지휘자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은 지휘자가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부산시립합창단이 창단 후 처음으로 무대에 올리는 대형 창작 칸타타 ‘아! 나의 조국!’, 매년 큰 인기를 모르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 레퍼토리 ‘Summer Fantasy’,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대규모 합창음악회 ‘위로의 메시지’, 정격(원전)연주로 들려주는 헨델의 ‘메시아’ 등 고전에서 현대까지, 다채로운 합창세계가 펼쳐진다.

오랜 공석의 침묵을 깨고 지난해 12월, 이정윤 신임 예술

감독의 취임공연 ‘소생(Regen)’으로 부산 관객과 첫 만남을 가졌던 부산시립무용단은 올해 ‘All to Dance, Dance to All’이라는 슬로건으로 상, 하반기 2차례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상반기 정기공연에서는 한국춤의 명품화와 브랜드화를 위한 부산시립무용단의 새로운 춤 컬렉션 ‘본색’이 무대에 오르며, 하반기에는 단막춤극 ‘동백’, ‘부부’를 무대에 올린다. 특히 부산시립무용단은 올해 스타 안무가들과 무용수들이 참가하여 다양성과 대중성을 확립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지역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는 ‘스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해 김종욱 수석지휘자가 취임하면서 김정수 예술감독과 함께 새로운 이원체제를 바탕으로 한 변화와 도약을 시도했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만의 색깔을 찾고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올해 슬로건은 ‘국악, 부산을 그린다.’ 우선 지난해부터 진행되어온 레퍼토리 개발은 2021년에도 계속 추진하여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는





한편, 오늘날 새로운 창작 레퍼토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지난 30여년 간 위축한 국악관현악 작품 중 음악적 완성도가 뛰어나고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4곡을 엄선, 동시대를 대표하는 명품의 재창작을 통해 현대적인 감성이 묻어나는 또 하나의 명품 탄생을 예고하는 ‘명품 재창작 관현악’, 70인 조 국악관현악과 대규모 합창,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소리꾼과 성악가들이 출연하는 대형무대 ‘국악칸타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올해 준비한 야심찬 무대로 벌써부터 국악애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시립극단은 올 한해 ‘가족에게(to my family) 가족으로부터(from my family)’라는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통해 ‘가족’의 존재와 그 의미를 모색해본다. 우선 2021년 첫 무대에서는 지난해 말, ‘가족’이라는 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객원연출가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채흡의 ‘벚꽃동산’과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1기 공연 ‘뮤지컬 피터팬’이 관객과 만난다. 특히 송년무대로 마련된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시립극단뿐 아니라 합창단, 무

용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시립예술단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초대형 융복합 공연으로, 2021년 예술단 최고의 기대작이 될 것이다.

이밖에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매년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21년 올해도 많은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젊은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후기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그리고 근대에 이르는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명곡으로 구성된 시리즈를 진행하는 한편, 단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한차례의 정기공연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연이 취소됨으로써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창단 50주년인 2023년을 앞두고 긴 역사와 전통에 어울리는 최고의 합창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한해 공연장을 찾을 수 없었던 청소년들을 위해 진행한 부산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예술교육공연’과 ‘온라인 예술교육공연’,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온라인 문화나눔 공연’들은 2021년에도 계속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1

부산시립예술단의 2021년 특별한 선물

예술단 7개 단체 64건 100여 회 공연 선사

부산시립예술단이 2021년 시즌프로그램을 확정했다.

2020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연들이 취소, 변경되면서 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기회가 적었던 만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균형(Balance)과 정돈(Clearance)

부산시립교향악단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많은 공연들이 취소되면서 무대를 위해 연습하고 연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객석을 가득 채워주는 관객들이 공연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21년 시민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며 2021년 신축년을 희망차게 시작했다. 올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슬로건은 ‘균형(balance)’과 ‘정돈(clearance)’. 세계 각지의 작곡가들이 쓴 고전부터 현대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우선 국내 교향악단으로서는 처음 완주했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에 이은 장기 프로젝트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곡 사이클’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관현악법의 마술사’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곡 열두 작품 전곡을 2022년까지 완주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무대에서는 ‘2021 신년음악회(1월 14일~15일, 571회 정기)’에서 연주되는 ‘볼레로’를 시작으로 ‘라발스’(4월 2일, 573회 정기), ‘고귀하고 감상적인 왈츠’, ‘바다 위의 작은 배’(7



월 16일, 577회 정기), ‘잔의 부채를 위한 팡파레’, 무소르그스키의 걸작 ‘전람회의 그림’에 라벨이 관현악으로 색채를 입힌 ‘전람회의 그림’(10월 14일~15일, 579회 정기) 등을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또다른 프로젝트인 ‘슈트라우스 어게인!’은 2017-2019 장기프로젝트로 진행되었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을 업그레이드한 무대로, 슈트라우스의 주요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다시 한 번 선보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였으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면서 올해 처음 선보이는 무대로, 4월 2일 열리는 제573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슈트라우스의 최초의 교향시 ‘돈 후안’을 들려준다.

특히 올해는 서거 110주년을 맞는 말러를 비롯해 서거 50주년을 맞는 스트라빈스키, 탄생 180주년의 드보르작 등 서양음악사에 있어 2021년을 기념하는 굵직한 작곡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말러의 굴곡진 인생과 사랑을 담은 그의 다섯 번째 교향곡(4월 30일, 574회 정기) 전국 연주에 이어 20세기 벽두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10월 14일~15일, 579회 정기)을 부산 초연으로 만나며, 체코 민족주의 음악을 세계적으로 만든 음악가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8번’(11월 26일, 581회 정기)도 무대에 오른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21년 올해부터 능력있는 예술가를 선정하여 한해 동안 협업을 진행하는 ‘올해의 예술가(Artist-in-Residence)’ 제도를 도입한다.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초대 상주작곡가를 역임하고 최근 뉴욕필하모닉, LA필하모닉 등 세계 주요 교향악단과의 협업으로 유명한 작곡가 김택수가 선정됐다. 첫 무대로 4월 2일 제573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부산을 모티브로 작곡된 관현악곡 ‘짤!’이 첫 선을 보이며, 12월 16일 제582회 정기연주회에서는 그가 2008년 작곡한 첫 번째 관현악곡 ‘플래시’를 들려준다. 이밖에 매년 송년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9월 16일 ‘제578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지난해부터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기획음악회 시리즈 ‘Casual Season’은 2021년 올해부터는 참신한 시도를 기본으로 하는 한밤의 음악실험실 ‘심야음악회’를 비롯해 수준 높은 실내악 무대로 꾸며지는 ‘실내악공장’, 정기연주회 리허설 과정을 공개하는 ‘미완성음악회’, 그리고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등 4가지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총 3회로 늘어난 ‘실내악공장’은 일부 정기연주회의 협연자가 실내악 멤버로 참여하는 특별한 무대를 올해 처음 시도한다.

올해 무대에서는 최수열 예술감독, 이민형 부지휘자 외에도 인천시립교향악단 이병욱 예술감독(4월 30일, 574회 정기), 프랑스 지휘자 아드리앙 페뤼송(7월 16일, 577회 정기), 창원시립교향악단 김대진 예술감독(11월 4일, 580회 정기)이 객원지휘자로 참여한다. 특히 김대진 예술감독은 지휘와 함께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23번’의 협연을 맡아, 유연하며 화려한 테크닉과 개성이 강한 작품해석으로 독자적인 연주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피아니스트로서의 면모도 확인할 수 있다.

세대를 아우르는 뛰어난 기량의 연주자들도 올 한해 부산을 찾아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1세대 피아니스트로 대한민국 음악계의 대모인 이경숙과 그의 딸이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규연(1월 14일~15일, 571회 정기),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명성을 얻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희연(12월 16일, 582회 정기), 최근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자주 무대에 오르며 부산관광과도 친숙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10월 14일~15일, 579회 정기), 서울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 김덕우,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첼로 수석 정재윤(3월 12일, 572회 정기), 핀란드방송교향악단 클라리넷 단원 김한(5월 27일, 575회 정기)과 2019년 윤이상국제콩쿠르 최연소 우승자인 무서운 십대 피아니스트 임윤찬(4월 2일, 573회 정기), 2017 프란츠 리스트 국제피아노콩쿠르 2위 입상한 부산 출신의 젊은 피아니스트 홍민수(11월 26일, 581회 정기) 등 개성 넘치는 연주자들이 꾸미는 다양한 성찬이 준비되어 있다.

고전에서 현대까지, 다채로운 합창세계

부산시립합창단

지난 한 해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준비된 공연이 잇달아 취소되는 가운데서도 이기선 예술감독과 함께 부산시립합창단만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부산시립합창단은 2021년 올 한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합창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올 한해 각각 4차례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2021년 첫 무대는 3월 4일 열리는 특별연주회로, 유명지휘자 초청 연주회로 마련된다. 안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객원지휘자 이상길과 함께하는 ‘새날을 꿈꾸며’는 현대합창음악 작곡가 스티브 도브로고즈의 ‘Mass’를 비롯해 그동안 부산에서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창작합창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스티브 도브로고즈는 클래식 뿐만 아니라 팝과 재즈 등 대중적인 음악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대 작곡가로, 그가 1992년 작곡한 재즈선율의 미사곡인 ‘Mass’는 지금까지 40여 개 나라에서 연주되고 있다. 11월 9일 특별연주회 ‘Healing for you’에서는 이상길 지휘자에 이어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은 지휘자가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두 번째 주인공으로 무대에 선다. 특히 이번 무대는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힐링음악회로, Comfort(위로), Peace(평안), Thanksgiving(감사), Love(사랑)를 주제로 한 다양한 편성의 합창음악을 선사한다.

부산시립합창단이 창단 후 처음으로 무대에 올리는 대형

창작 칸타타 ‘아! 나의 조국!’은 5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제181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선보인다. 대한민국의 잊혀져서는 안 될 과거의 아픈 역사를 뮤지컬 형식으로 선보이는 무대로, 지난 2015년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으로 선보였던 ‘부산 맥아리랑’의 작곡가 이진실이 시놉시스와 작곡을 맡아 진행중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4일 열리는 제182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대규모 합창음악회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고 부산시립합창단과 춘천시립합창단, 그리고 바리톤 이광근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일반적인 미사곡과 달리 히브리어 가사로 부르는 레너드 번스타인의 ‘치체스터 시(Chichester Psalm)’를 선보인다.

지난 2005년 첫 선을 보인 후 매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 프로그램 ‘Summer Fantasy’는 7월 22일 관객과 만난다. 특히 올해는 전 국민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K-POP을 비롯하여 트로트와 부산을 주제로 한 가요 등 다양한 세대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범한 명곡을 엮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무대를 선사한다. 10월 7일 제183회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현대 합창의 밤’에서는 부산에서 자주 만날 수 없는 최신 현대 합창곡들을 선곡, 새로운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제184회 정기연주회는 정격(원전) 연주로 들려주는 헨델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정격(원전)연주란 말 그대로 작곡 당시인 그 시대의 음악을 재현하는 연주로, 현대악기가 아닌 당대에 사용하던 악기와 연주법으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12월 9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고음악 전문 연주오케스트라인 카메라타 안티콰의 연주로 현대악기로는 들을 수 없었던 그 시대 원전에 충실한 ‘메시아’를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 지난해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들과 함께하는 ‘부산합창제’는 10월 25일부터 나흘간 펼쳐질 예정이다.

All to Dance, Dance to All

부산시립무용단

“지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부산시립무용단은 올해 거창한 미래를 위한 행보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난해 12월, 취임공연 ‘소생(Regen)’으로 부산 관객과 첫 만남을 가졌던 부산시립무용단 이정운 예술감독은 2021년 새해를 맞아 “올 한해 단원들의 건강과 기량 향상에 무게를 두고 한국춤 본연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만의 고유의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팬데믹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새로운 예술시장으로의 유통 경로를 모색하고 찾겠다”며 새로운 의지를 다진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올 한해 상, 하반기 두차례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리는 제83회 정기공연에서는 한국춤의 명품화와 브랜드화를 위한 부산시립무용단의 새로운 춤 컬렉션 ‘본색’이 무대에 오른다.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를 수용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재 춤계에서도 시대를 반영한 ‘신전통’, ‘명무’ 등과 같은 새로운 한국춤이 선보이고 있다. 부산시립무용단도 이런 시대상에 발맞추어 자체 고유성과 정통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팔도의 춤’과 ‘영남춤’의 빛깔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새로운 한국춤 레퍼토리를 개발함으로써 부산시립무용단만의 춤에 대한 본색들 드러내며 ‘부산의 춤’ 명품화를 위한 시리즈 공연 첫 무대

를 선보인다.

11월 18일과 19일에는 단막 무용극 ‘동백’, ‘부부’를 무대에 올린다. 부산시립무용단은 기존 시대극이나 재현의 무용극이 아닌 보다 진화된 춤극으로서 국내외 예술가들과 면밀한 교류를 통해 시대적, 장르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부산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춘 대본과 시놉시스에 새로운 구성과 무대연출, 그리고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올해부터 진행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스타무용수 발굴과 육성에도 안성맞춤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올해 기존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시대성과 고유성 그리고 공공성 등을 반영한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부산시립무용단만의 특별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춤과 인문학이 만나는 ‘춤과 인문학 콘서트’는 춤에 깃든 철학과 예술활동의 근간이 되는 요소들을 찾아가는 이색 무대로, 명사 초대와 무용가의 매칭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이번 무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관객과의 대화 및 해설이 있는 무용 공연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시립무용단이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스타프로젝트 ‘트리플 빌(가제)’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스타프로젝트 ‘트리플 빌(가제)’은 스타 안무가와 스타 무용수들의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국내외 무용예술시장으로의 진입과 예술적 완성도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무대이다. 여기에 매회마다 새로운 테마를 선정하여 다양성과 대중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스타 예술가들과 지역 춤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안무가, 무용수, 지역, 장르, 연령, 성 등의 구분을 기획적으로 접근함으로써 2022년 창단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부산시립무용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로 만들 예정이다.

국악, 부산을 그린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난해 김종욱 수석지휘자가 취임하면서 김정수 예술감독과 함께 새로운 이원체제를 바탕으로 한 변화와 도약을 시도했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만의 색깔을 찾고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21년 올 한해도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예술감독과 악단의 음악적 완성도를 위한 수석지휘자의 이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전통 국악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는 한편, 우리음악의 대중화 및 현대화 작업에도 꾸준히 힘써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올 한해 5회의 정기, 5회의 특별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부터 진행되어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레퍼토리 개발은 2021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3월 18일 열리는 제209회 정기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지난 30여년 간 위축한 국악관현악 작품 중 음악적 완성도가 뛰어나고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4곡을 엄선, 동시대를 대표하는 명품의 재창작을 통해 현대적인 감성이 묻어나는 또 하나의 명품 탄생을 예고한다. 지난해 처음 시도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관현악 ‘축제’(이준호 곡), ‘표’(박일훈 곡), 합주곡 제3번(김희조 곡), 합주곡 제2번 ‘풍어’(김영재 곡)가 작곡가 김범기, 박한규, 김동학, 이귀숙의 재창작으로 선보인다. 특히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제211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한 무

대 ‘국악칸타타’가 무대에 오른다. 수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작곡가 김은혜와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해온 시인 이청산이 함께 마련한 이번 무대는 70인조 국악관현악과 대규모 합창,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소리꾼과 성악가들이 출연, 힘들고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래를 들려준다. 이 밖에 2021년 위촉곡으로 작곡가 이기녕, 이복남(4월 22일~23일, 협주곡의 밤), 오세일(8월 11일,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 김성경, 박영란(12월 28일, 송년음악회)의 창작곡을 선보임으로써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는 한편, 오늘날 새로운 창작 레퍼토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4월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특별연주회 ‘협주곡의 밤’에서는 이 시대 해금과 가야금을 대표하는 젊은 국악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특별한 무대로, 해금주자 서은영, 안은경, 김준희, 윤혜승과 가야금주자 곽수은, 오해향, 윤경선, 최미란 등 전국의 내로라하는 연주자들이 협연자로 출연하여 각자 자신의 색깔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작품으로 부산 관객과 만난다. 7월 8일 특별연주회에서는 지역의 젊은 음악가들을 위한 스타프로젝트 ‘두개의 바람 二風異流’가 펼쳐진다. 최고의 열정, 예술혼으로 일가를 이룬 명인, 명창, 명기를 만날 수 있는 ‘명인·명창·명기의 무대’는 10월 21일 제212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박성희, 정선희(소리), 김경수(태평소), 송영남, 하지희(가야금) 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배출한 대통령상 수상자 5인의 특별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이 밖에도 품격있는 전통음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전통음악의 밤’(6월 10일),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날려버릴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8월 11일), 미래 국악도들을 위한 제4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11월 24일), 202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음악회’(12월 29일) 등 다양하면서도 기획력이 뛰어난 공연들로 풍성하다.

가족에게(to my family) 가족으로부터(from my family)

부산시립극단

“개방을 통해 변화하고, 확장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 올해 부산시립극단의 운영 원칙입니다. 예술감독은 작품의 방향성을 정하고 단원들의 열정과 마음을 가꾸고 다듬겠습니다. 단원들은 예술적 기량을 갈고 닦는 데 매진할 것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계획했던 많은 공연들이 무대에 오르지 못해 아쉬웠다는 부산시립극단은 2021년 을 한해 ‘가족에게(to my family) 가족으로부터(from my family)’라는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통해 ‘가족’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였지만 역설적으로 그간 소홀했던 가정으로의 회귀를 이뤄내기도 했다.

우선 2021년 첫 무대는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객원연출가의 무대(4월 9일~11일, 69회 정기)로 마련된다. 시즌 주제인 ‘가족에게 가족으로부터’에 맞춰 ‘가족’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기존 희곡 및 창작희곡이 무대에 오를 예정으로, 지역 연극인과 부산시립극단의 협업무대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체홉의 ‘벚꽃동산’(7월 1일~3일, 70회 정기)과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1기 공연 ‘뮤지컬 피터팬’(8월 중, 특별)이 관객과 만난다. 두 작품 모두 ‘가족’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특히 체홉의 4대 장막 희곡 중 마지막 작품인 ‘벚꽃동산’은 계

급사회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가치가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던 러시아 말기를 배경으로 몰락해가는 귀족가문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슬픔을 담담하게 그린 작품이다. 이번 작품에서는 부산연극제에서 수차례 연출상을 수상하며 부산 연극의 대표 연출가로 자리매김한 연출가 강성우가 부산시립극단과 호흡을 맞춘다.

이 밖에 교육연극으로 기획된 뮤지컬 ‘미운 오리 새끼’(9월 28일~10월 23일, 특별)와 송년무대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롤’(12월 23일~24일, 71회 정기)도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안데르센 원작의 ‘미운 오리 새끼’는 가족의 상실과 회복을 통해 정체성과 자아를 발견하는 작품이며,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시립극단뿐 아니라 시립예술단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초대형 융복합 공연으로 선보인다. 특히 ‘크리스마스 캐롤’은 부산시립무용단의 춤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이 어우러지는 2021년 예술단 최고의 기대작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개방’을 통해 변화와 확장, 발전을 꾀하여 왔던 부산시립극단은 지난해 제67회 정기공연 ‘갈매기’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8명의 객원배우를 선발, 새로운 자극을 주는가 하면 제68회 정기공연 ‘체홉의 이야기’에서는 시립극단의 문을 더 활짝 열어 5명의 객원연출, 23명의 객원배우, 9명의 상임단원이 참여하는 연극적 축제를 펼치기도 했다. 특히 ‘갈매기’는 대극장 무대 위에 원형무대를 축조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색다른 관극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부산시립극단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오디션을 통해 객원연출과 객원배우를 선발함으로써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공연 회차도 더욱 늘여가면서 현재 연간 20회 미만의 극장공연을 40회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공연을 찾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젊은 오케스트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행사와 연주가 취소되면서 한없는 무기력감을 느꼈지만, 그 변화에 민감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단원들을 지켜보며 오히려 많이 배울 수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올해도 많은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젊은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매년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올 한해 각각 3차례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명근 수석 지휘자는 무엇보다 음악전공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만큼 올해도 단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올 한해 정기연주회에서는 후기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그리고 근대에 이르는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명곡으로 구성된 시리즈를 진행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애청 레퍼토리’를 통해 각종 설문조사에서 알려진 명곡들과 소규모 챔버 오케스트라의 콘체르토 등 정통적 레퍼토리와 집중된 연습으로 만날 수 있는 학구적인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3월 19일 열리는 2021년 첫 무대인 제65회 정기연주회 ‘화려한 전성기, CLIMAX’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과 불후의 명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

토벤 교향곡 제7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은 18세의 나이에 이탈리아 페루초 부소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콩쿠르 최고상과 청중투표 인기상, 아마하상, 로타렉트상 등을 휩쓸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피아니스트 피아윤이 협연한다.

9월 24일 열리는 제66회 정기연주회 ‘노련함, VETERAN’에서는 하이든과 드보르작이 남긴 마지막 교향곡으로 작곡가의 노련미가 돋보이는 교향곡 제104번 ‘던던’과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는 단원들에게 챔버 앙상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대로, 스트라빈스키의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덤바턴 오스크’이 연주된다. 스트라빈스키가 ‘바흐로 돌아가라’는 모토를 내걸고 신고전주의 시절의 끝자락에 작곡한 ‘덤바턴 오스크’는 바흐 시대의 협주곡 스타일을 취하고 있어 현대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2021년 마지막 무대인 제67회 정기연주회 ‘겨울...차이콥스키’에서는 러시아의 위대한 천재 작곡가이자 러시아 클래식 음악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차이콥스키의 작품으로 꾸며진다. 단원들의 앙상블 실력을 키우기 위한 차이콥스키 ‘세레나데’를 시작으로 베토벤, 브람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함께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는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송년무대의 단골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호두까기인형’을 들려준다.

이 밖에 단원들 중 오디션을 거쳐 실력있는 협연자를 선발해 협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솔로리스트들의 축제’(5월 21일), 2021년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 ‘렉처콘서트’(8월 12일), 공연 기획부터 연습, 진행까지 단원들의 협업으로 만드는 실내악무대 ‘청소년 실내악의 밤’(10월 23일-24일) 등 3차례 특별연주회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시민들과 호흡하고 문화소의 지역을 찾아가 음악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찾아가는 공연’,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공연도 올 한해 계속된다.

역사와 전통에 어울리는 최고의 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한동안 지휘자 공석으로 정체기에 있었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지난해 갑작스런 불청객인 코로나19로 한참 성장하고 있던 분위기가 다시 침체되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2019년 3월, 지휘자 김수현씨가 수석지휘자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해 새롭게 변화된 합창단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한 차례의 정기공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소됨으로써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코로나19가 잠시 진정세를 보였던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157회 정기공연 ‘우리동네 경사났네’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가곡과 민요, 전통혼례와 마당놀이를 합창곡으로 꾸민 동명의 무대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지난 1973년 창단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창단 50주년인 2023년을 앞두고 긴 역사와 전통에 어울리는 최고의 합창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단원들이 합창단 활동을 통해 음악적 소질을 키우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화합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올해 6차례 정기·특별연주회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월 26일과 27일 향상음악회로 2021년 첫 무대를 연다. 올해 새롭게 꾸려진 연주반 단원들과 함께 단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악발표회를

통해 음악적 실력 향상은 물론 무대 경험을 쌓게 할 예정이다. 이날 무대에서는 솔로를 비롯해 듀엣, 트리오, 그리고 소규모 합창까지 다양한 구성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올해 3차례 예정된 정기연주회는 지난해 정기연주회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들로 꾸며진다. 2021년 첫 정기연주회는 5월 29일 열리는 제158회 정기연주회 ‘양탄자 타고 음악여행Ⅱ’로, 지난 2019년 9월 열렸던 제155회 정기연주회 ‘양탄자 타고 음악여행’을 통해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우효원의 음악극 ‘날으는 양탄자’를 새롭게 구성한 무대로, 새로운 각색과 재편곡된 넘버로 관객들의 시선을 다시 한 번 사로잡을 예정이다. 9월 11일 열리는 제159회 정기연주회 ‘부산에 부는 바람’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만의 다양한 창작곡을 선사하는 무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작곡가들의 위촉곡과 더불어 기존 뮤지컬을 여성 합창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작곡가 손민혜의 ‘제비뎌’를 초연한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제160회 정기연주회 ‘Santa, Jazz & Unplugged’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17일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 송년무대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었던 영국의 합창지휘자이자 유명 작곡가인 밥 칠컷(Bob Chilcott)의 로맨틱한 재즈미사곡인 ‘Nidaros Jazz Mass’와 마크 브라이어의 마술같은 크리스마스 이벤트 ‘산타 언플러그드(Santa Unplugged)’로 재즈 음악 가득한 로맨틱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 밖에 11월 5일과 6일에는 청소년 합창 문화의 발전과 합창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해왔으나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가 열릴 예정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21년 올 한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합창으로 행복한 부산을 꿈꾸며 관객과 함께 할 예정이다.

2021 PERFORMANCE CALENDAR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관 화 회 관	대극장	기획		3/6(토) 피아니스트 임동민&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6/22(화) 비엔나&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예술단	1/12(화) 교향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기획) 1/14(목) 교향 '부산시향의 신년음악회' (제571회 정기)		3/4(목) 합창 '유명지휘자 초정연주회I-새날을 꿈꾸며'(특별) 3/18(목) 국악 '명품 재창작 관현악'(제209회 정기) 3/19(금) 청소년교향 '화려한 전성기, CLIMAX' (제65회 정기)	4/22(목)-23(금) 국악 '협주곡의 밤' (특별) 4/30(금) 교향 '부산시향의 말라'(제574회 정기)	5/7(금) 국악 '신춘다례연'(특별) 5/13(목)-14(금) 합창 '아 나의 조국' (제181회 정기) 5/27(목)-28(금) 무용 '한국춤 명품 컬렉션-분색' (제83회 정기) 5/29(토) 소년소녀 '양탄자 타고 음악여행II' (제159회 정기)	6/24(목) 합창 '위로의 메시지' (제182회 정기)	
	중극장	기획				4/3(토) 탈춤판 '가장무도' 4/24(토) NT-Live '워 호스'	5/1(토) BSCC Cine Opera Choice '라 트라비아타' 5/20(목) 스냅 SNAP 5/26(수) 스쿨 온 스테이지	6/12(토) BSCC Cine Opera Choice '리콜레토' 6/15(화) 프레데리크 기 리사이틀	
		예술단			3/10(수) 교향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II'(기획) 3/12(금) 교향 '신후배' (제572회 정기)	4/9(금)-11(일) 극단(제69회 정기)	5/7(금) 교향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I'(기획) 5/21(금) 청소년교향 '2021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특별)	6/10(목) 국악 '전통음악의 밤' (제210회 정기) 6/18(금) 교향(제576회 정기)	
	챔버홀			2/26(금)-27(토) 소년소녀 '향상음악회'(특별)		4/16(금) 교향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I'(특별)			
	사랑채극장								
	시 민 회 관	대극장	기획				5/28(금) 2021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6/19(토)-20(일)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 4	
			예술단	1/15(금) 교향 '부산시향의 신년음악회' (제571회 정기)	2/18(목) 교향 '제7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기획)		4/1(목) 교향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II'(기획) 4/2(금) 교향 '슈트라우스 아게인III' (제573회 정기)	5/25(화) 교향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V'(기획) 5/27(목) 교향 '열정' (제575회 정기)	
		소극장	기획				4/30(금) 잠비나이 콘서트		
			예술단				4월 중 2021 시민뜨락축제	5월 중 2021 시민뜨락축제	
야외마당									
전시실			2/5(금)-2/21(일) 2021년 부울경 미술대학 예비작가 초청전시						

※ 이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7/31(토)-8/1(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8/20(금)-29(일)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9/3(금)-5(일)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MOTI/어디로부터>	10/22(금)*24(일)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II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12/18(토) 조수미&이 무지치 12/31(금) 2021 제야음악회
7/16(금) 교향 '프랑스식 뷔앙스' (제577회 정기) 7/22(목) 합창 '2021 Summer Fantasy'(특별)	8/10(화) 교향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 친구'(기획) 8/12(목) 청소년교향 '2021 렉처콘서트'(특별)	9/8(수)-9/9(목) 국악 '국악칸타타' (제211회 정기) 9/11(토) 소년소녀 '부산에 부는 바람' (제160회 정기) 9/16(목) 교향 '합창'(제578회 정기) 9/24(금) 청소년교향 '노련함, VETERAN'(제66회 정기)	10/7(목) 합창 '해설이 있는 현대 합창의 밤II'(제183회 정기) 10/25(월)-28(목) 합창 '제33회 부산합창제' (특별)	11/4(목) 교향 '모차이름'(제580회 정기) 11/5(금)-6(토) 소년소녀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특별) 11/9(화) 합창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2-Healing for you' (특별) 11/11(목)-12(금) 교향 '부산시향의 우리아이 음악회'(특별) 11/18(목)-19(금) 무용 '출국-동백, 부부' (제84회 정기) 11/24(수) 국악 '제4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특별) 11/26(금) 교향 '보헤미안'(제581회 정기)	12/2(목) 청소년교향 '겨울... 차이콥스키'(제67회 정기) 12/17(금) 소년소녀 'Santa, Jazz & Unplugged'(제161회 정기) 12/23(목)-24(금) 극단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제71회 정기) 12/28(화) 국악 '송년음악회' (제213회 정기)
7/10(토)-11(일) 7/16(금)-18(일) 뮤지컬 '알사랑'	8/20(금)-29(일)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9/4(토) BSCC Cine Opera Choice '아이다' 9/9(목)-10(금) 극단 '돌파구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10/23(토) NT-Live '리어왕'	11/5(금)-6(토)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11/17(수) 스쿨 온 스테이지 11/26(금)-27(토) 안은미 컴퍼니 'A-드래곤'	12/4(토) BSCC Cine Opera Choice '맥베스'
7/1(목)-3(토) 극단 '벚꽃 동산' (제70회 정기) 7/8(목) 국악 '스타프로젝트-두 개의 바람 이품이류'(특별)	8/27(금) 교향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III'(기획)	9/30(목) 교향 '제77회 청소년협주곡의 밤'(기획)	10/21(목) 국악 '명인·명창·명가의 무대' (제212회 정기)		12/3(금) 교향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III'(기획) 12/14(화) 교향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VI'(기획) 12/16(목) 교향 '시작 아니면 끝' (제582회 정기)
7/2(금) 교향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II'(기획)			10/21(목) 교향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III'(기획) 10/23(토)-24(일) 청소년교향 '청소년 실내악의 밤'(특별)		
		9/28(화)-10/23(토) 극단 '미운 오리 새끼'(특별)	9/28(화)-10/23(토) 극단 '미운 오리 새끼'(특별)		
	8/20(금)-29(일)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8/21(토) 썸머 나이트 콘서트 8/28(토)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11/10(수) 마린스키 극장 오페라단 '이고르 공' 콘서트 오페라	
	8/11(수) 국악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특별)		10/12(화) 교향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V'(기획) 10/14(목)-15(금) 교향 '스키'(제579회 정기)		12/9(목) 합창 '정격연주법에 의한 헨델의 메시아 대연주회' (제184회 정기)
	8/20(금)-29(일)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9/17(금)-18(토) 낭만희극 '십이야'	10/23(토)-24(일) 연극 '흑백다방'		12/17(금)-18(토) 연극 '단편소설집'
		9월 중 2021 시민뜨락축제	10월 중 2021 시민뜨락축제		


사랑하는 노래가 합창으로 하나되어
행복한 낭만주의자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변원탄 회장

정두환 문화유목민, 음악평론가

낭만주의자를 우리는 흔히 '전통과 규범에 얽매이기를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성과 내면의 움직임에 충실한 자'로 표현한다. 하지만, 진정한 낭만주의자는 전통과 규범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먼저 전통과 규범을 이해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무엇이 전통이고, 무엇이 규범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낭만이 아니라 방종(放縱)으로 흐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하기에 진정한 낭만주의자를 만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모두들 '낭만'이라는 말에 도취되어 그냥 낭만주의자를 그저 동경하거나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낭만주의자로 착각해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시대의 낭만주의자 변원탄 회장은 현재 양산병원 이사장이자 (사)송인문화재단 이사장이며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장으로 부산문화예술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은 고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합창이 참 좋고, 합창을 너무 사랑합니다. 노래할 때가 정말 행복합니다." 청년 변원탄을 음악의 세계, 합창의 세계로 안내한 곳은 노엘합창단이라는 남·여 고등학생들이 모여 함께 노래하는 부산 최초의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며 실천하는
이 시대의 낭만주의자이자

고등학교 혼성합창단이었다.(이 합창단의 OB단원들이 중심이 되어 노래한 것이 1972년 부산시립합창단의 전신이 된다.) 변원탄 회장은 그때 느꼈던 합창의 매력을 평생 실천하며 문화예술에 헌신하는 합창인이다.

일반적으로는 좋아하는 일을 자신이 직접 행하기를 원하지만, 변원탄 회장은 음악의 길보다는 의과대학으로 진학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된 이후 대한정신병원협회 회장, 대한신경정신과학회 부산·경남지부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의료계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로서 의사의 길을 갔다. 힘든 의사의 삶에 활력을 준 것은 합창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었다. 지금도 그는 합창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노엘합창단을 30년이 넘도록 이끌며 단장으로 헌신하고 있으며, 그의 삶과 온 가정은 합창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후원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부인 박성복 씨 또한 고교시절 노엘합창단에서 함께 활동한 합창인이며, 둘째 딸 변애영 씨는 프랑스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예술 분야는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등 장르별로 다양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합창뿐입니다.” 스스로 합창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그는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 위원장과 부산국제합창제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합창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부산 대연동에 ‘코랄하우스(Choralhaus)’를 만들어 다양한 합창단이 노래할 수 있게 하였다. “요즈음은 코로나 19로 모여서 노래할 수 없으니 참으로 힘듭니다. 빨리 함께 모여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요즘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도 다들 나이가 많아지고 있더군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함께하는 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합창은 나를 낮추고 서로를 신뢰하는 기본을 이야기 해줍니다. 함께 모여 하는 것의 중요성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합창입니다.” 이러한 합창의 묘미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그는 합창을 돕고 있다. “문화예술은 사회나 현대인의 삶에 있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유일한 예술은 그 자체가 인간을 풍요롭고 가치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좋아하고 가치있는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가는 변원탄 후원회 회장의 문화에

술에 대한 각별한 사랑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 12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졌던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 건립을 위한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에서는 선명한 대형 화면이 무대 양옆에서 관객들을 비추고 있었다. 필요하였지만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미루어졌던 LED 영상시스템이다. 그가 회장으로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에서 이 LED 영상시스템을 기증하여 첫 선을 보인 것이다. 오페라 아리아가 울려 퍼지는 순간 원어와 해석된 한글의 자막이 나란히 나타나면서 음악의 이해를 도왔다.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것을 조금씩 찾아 채워나가며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을 시민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장으로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은 소박해 보였지만, 단호하였다. 낭만주의는 나를 비롯하여 함께 변화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느끼게 했다.

변원탄 후원회장은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장으로서 보다 많은 후원회 회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며, (재)부산문화회관에 있어 정상적인 예산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 후원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매년 일역원의 후원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을 시작으로 남아있는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극장에 LED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돈을 벌면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에 후원하는 것은 가치있고 스스로에게도 품격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회 일에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나이 들어 가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더불어 정장을 차려입고 품격있게 공연장을 다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공연을 즐기기 위해 후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일 아닙니까!”라고 강조하는 그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이미 가득하다.

“정 선생, 나는 말이요 베토벤 교향곡 9번의 합창 부분을 원어로 모두 외워서 노래할 수 있다요.” 합창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흡족해하는 변원탄 후원회 회장. 그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며 실천하는 이 시대의 낭만주의자요, 품격있는 신사이다. 예술과 더불어 살아가는 변원탄 후원회장에게 행복한 예술이 더욱 가득 하길 기원한다.

부산에서 즐기는 아세안의 문화

아세안문화원
ASEAN CULTURE HOUSE



박나무 자유기고가

동남아, 동남아시아를 줄여 이르는 말이다. 한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를 동남아 사람으로 지칭하는 것을 웃음의 소재로 삼아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친한 친구간에는 별명을 부를 수도, 때론 짓궂은 농담도 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가 그렇게 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친하려면 잘 알아야 하고 잘 알기 위해서는 왕래가 잦아야겠지. 세상은 경제력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마다 존중받아 마땅한 역사와 문화가 존재한다. 신남방정책으로 표방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일이라, 민간 차원의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돕기 위한 아세안문화원이 부산 해운대에 자리 잡은 지 만 3년이 넘었다.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회원으로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이르는 말이다. 한자세대들은 아시아를 음역한 '아세아'와 관련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으나 영문을 줄이다 보니 그렇게 약칭된 우연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이 아세안의 주요 대화상대국이고, 왕성한 교류를 통해 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국의 문화원이 그러하듯 아세안문화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세안의 각 국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언어강좌를 비롯해 요리강좌와 영화상영, 상설전시, 기획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세안문화원은 코로나19로 세계여행이 불가능한 요즘 동남아시아 각국의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아세안문화원은 코로나19로 세계여행이 불가능한 요즘 동남아시아 각국의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2층에 자리한 상설전시관에는 아세안 10개국의 공예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각국의 전통이 아로새겨진 작품들을 보노라면 그 나라 사람들의 특성과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 또 그것들은 예술이기도 한데 화려한 디자인과 다채로운 색상은 기계도 따라가기 어려운 경치를 보여준다. 2021년 4월까지의 아세안 국가들의 거리음식을 주제로 한 ‘호로록 찹찹 오몰오몰’전이 열린다. 아세안의 각국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한데, 그중에 빠질 수 없는 게 맛과 향이 강한 거리음식들이다. 이 음식들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과 퍼포먼스가 선보일 것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아세안 공예장터가 열리고, 캄보디아 서커스와 태국 마임을 선보이며, 인도네시아 문화축제를 열고, 한-아세안 전통음악으로 열린음악회를 펼쳐내는 곳이 아세안문화원이다. 싱가포르 댄스앙상블을 소개하고,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를 무대에 올리기도 한다. 각국의 음악가를 초청해 연주회를 가지고, 아세안 각국의 영화를 자동차극장에서 상영한다. 나라별로 테마를 정해 ‘알기쉬운 베트남영화상영회’, ‘영화속 색다른 태국이야기’, ‘한-아세안 어린이영화상영회’, ‘한-아세안 다큐멘터리 영화상영회’ 등을 열어왔다. 쉬지않고 열정적인 프로그램들을 쏟아내는 아세안문화원에게 2020년 닥쳐온 코로나19는 침체이기도 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풀어낸 온라인전시회는 또다른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2층의 상설전시는 온라인에서 거의 실사에 가깝게 구현되고 있다.

우리가 아세안문화원을 방문한 12월에는 ‘아세안에서 온 참전용사’란 이름으로 로비에서 팝업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태국과 필리핀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의 활약상을 사진으로 전시한 것. 태국군 136명이 타국의 전쟁에 와서 목숨을 잃었고, 5명이 실종됐으며 부상자는 1,139명에 달한다. 필리핀군은 7천여 명의 병력이 건너와서 112명이 목숨을 잃었다. 태국과 필리핀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을 아는 이도 많지 않을 것이다. 피 흘려 함께한 나라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그렇게 아세안문화원은 차근차근 아세안을 우리나라에 알리고 있다. 서로를 잘 안다면 쓸데없는 선입견은 걷어내고, 제대로 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 아세안문화원은 현재 코로나19 추가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약관람제(회차당 15명 인원제한)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 아세안문화원 051-775-2001, www.ach.or.kr

한-아세안 공예장터가 열리고, 캄보디아 서커스와 태국 마임을 선보이며, 인도네시아 문화축제를 열고, 한-아세안 전통음악으로 열린음악회를 펼쳐내는 곳, 바로 아세안문화원이다.



현대음악 :

코로나19로부터의 울림들

이강규 작곡가, 상명대학교 교수



작곡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저에게 난감해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경영학을 전공하는 제 친구가 ‘현대음악은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왜 국가에서 이런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지’ 물어보는데, 도대체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이 학생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제가 현대음악을 연구하고 작곡하는 작곡가이며 대학에서 현대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에게는 이 질문에 대해 좋은 답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저도 이 질문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또한 음악의 본질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과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 현대음악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저 나름의 답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 현대음악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과 가치들을 이해해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여러 분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작곡 전공자인 학생이 경영학 전공자 친구로부터 받은 질문은 순수 예술분야 작곡을 전공하는 학생이거나 또는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꽤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음악은 난해하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음악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음악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악들이 작곡될 그 당시 기준으로는 ‘현대음악’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별 어려움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여겨지는 곡들이 작곡될 당시에는, 매우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거인’,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그리고 바그너의 악극 ‘트리스탄과 이졸데’ 등이 그러한 작품들에 해당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악들이 작곡될 당시에 어렵고 난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작곡되고 있는 21세기의 현대음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모든 현대음악은 이상하고, 기괴하고, 공포영화가 연상되는 그러한 음악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음악은 주로 세계 1, 2차 대전 전후로 작곡된 음악들이며, 그 당시의 사회적 문제와 그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많은 철학자, 과학자, 그리고 예술가들이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단 한 가지의 답을 내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또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음악을 영유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21세기의 현대 음악보다는 방탄소년단, 아이유, 임영웅의 음악들과 같이 대중음악을 더 많이 접하시겠지만, 어쨌든 음악은 그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과 아주 친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대음악의 존재적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에 “이런 대중적이지 않은 음악이 왜 필요한가”보다는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음악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음악은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난해합니다. 대중들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이기적이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순수예술이 대중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예술



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작곡가 자신의 생각과 표현의 대상을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주관적으로 묘사해 낼 뿐입니다. 작곡가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대중적인 현대음악은 있을 수 있지만, 대중을 배려한 현



작곡될 당시 난해하게만 여겨졌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은 서울시향의 송년음악회로 매년 매진 공연되고 있다.

대음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음악을 이해하는 것은 오로지 청중들의 몫입니다. 그 대신, 작곡가들은 사고와 표현의 방식에서 보편적임을 넘어서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작곡가들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표현의 방식들에 대해 고민하고 상상하여 음악의 새로운 세계를 펼쳐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진화와 함께 청중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음악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음악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청중들로 발전해 왔습니다. 조금은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작곡가와 청중의 관계는 오랜 시간을 거쳐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어렵고 난해하게만 여겨졌던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이 정기적으로 서울시향의 송년음악회로 매년 매진 공연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청중들의 이해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술이 발전을 이루고, 이러한 예술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음악을 포함한 모든 예술은 작곡가나 화가와 같이 창작자들에게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공감하며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음악은 가장 대중적이지 않지만, 동시에 대중이 반드시 있어야만 완성될 수 있는 음악인 것입니다.

2021년 부울경 미술대학

예비작가 초청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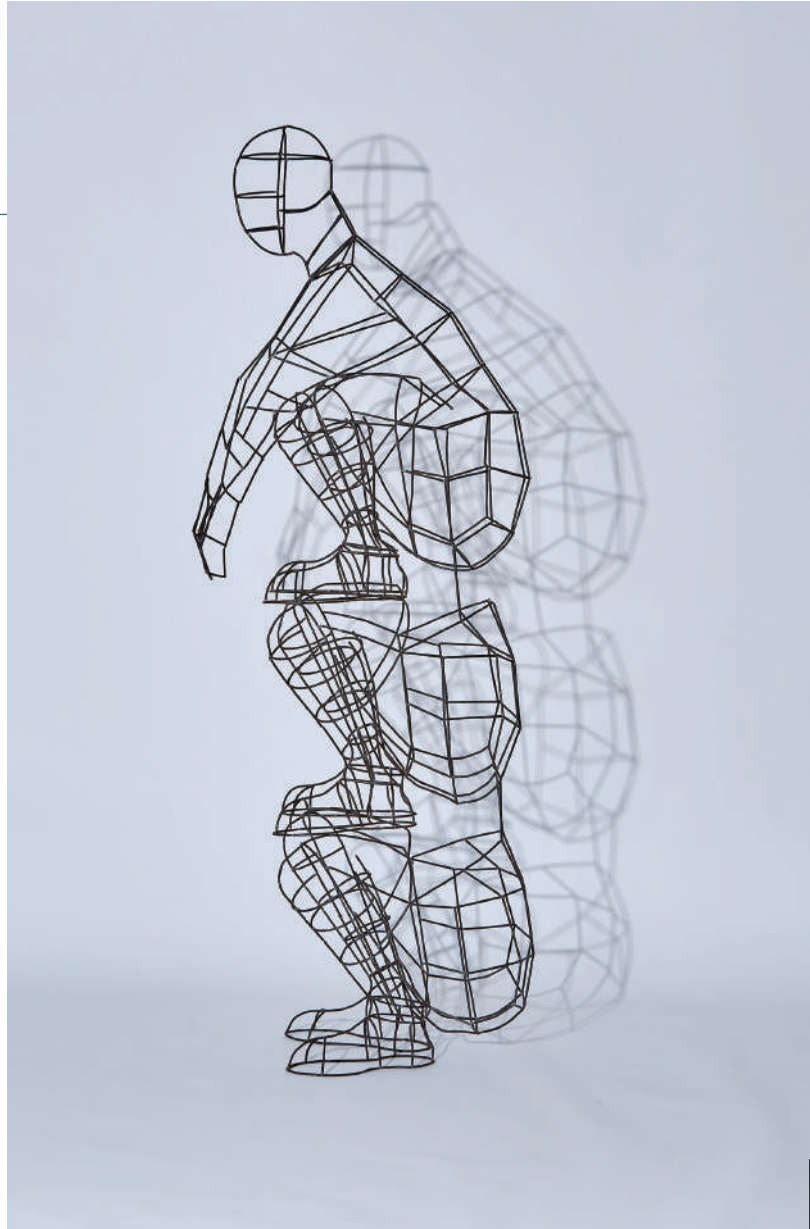
Prospective Artist
Invitation Exhibition

2020. 2. 5^금 ~ 21^일

부산시민회관, KT&G상상마당 부산
BNK부산은행 갤러리, 부산청년문화공간 청년작당소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민회관 630-5235
KT&G상상마당 부산 070-8890-0893~4



▲ 김지양

◀ 이유진

ART



성다정 ▶



◀ 송화윤

▼ 김동욱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8개 대학 미술학과 예비졸업생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2021년 부울경 미술대학 예비작가 초청전시'가 2월 5일부터 부산시민회관 전시실과 KT&G상상마당 부산, 부산시민회관, BNK부산은행 갤러리, 부산청년문화공간 청년작당소에서 개최된다.

(재)부산문화회관, KT&G상상마당 부산이 주최, 주관하고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민·관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예비작가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작가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신라대학교, 동의대학교, 울산대학교,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등 부울경 8개 대학 미술학과 교수들의 추천을 받은 예비졸업생 74명의 100여 작품이 소개된다. 총동적으로 튀어나온 무의식의 흔적을 설치물로 제작한 김동욱(부산대학교)의 'ID[이드]',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철선으로 된 설치물로 제작한 김지양(창원대학교)의 '지금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꺼리는 나와 나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하는 나의 두가지 상반된 감정을 표현한 성다정(울산대학교)의 '위장', 소중한 감정을 알려준 모든 이들에게 서툰 나의 진심을 전하는 송화윤의 '회상(回想)', 실패와 아픔을 통해 내면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우리의 인생을 빗줄로 묘사한 이유진(경성대학교)의 '우리의 인생' 등 저마다 가진 다양한 화풍과 주제 의식이 담긴 작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예비작가들이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위해 마련한 만큼 전시기간 동안 참가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예비작가들의 고민 상담에서부터 선배 멘토들이 들려주는 지역에서 작가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기관, 기업의 정책적 지원방법까지 그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도움을 전해준다.

전시는 2월 21일까지 계속되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원도심(동구, 진구, 중구)에 자리한 4곳의 갤러리에서 동시 진행된다.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오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The Maurice Ravel Cycle II - Complete Orchestral Works 2020-2022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1회 정기연주회 2021 신년음악회



- 지난해 갑작스런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공연을 취소해야 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새해에 거는 기대와 희망을 담아 '2021 신년음악회'를 연다.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고 대한민국 1세대 대표 피아니스트 이경숙과 그녀의 딸이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규연이 함께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지난해부터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2020-2022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곡 사이클' 두 번째 무대로, 그의 대표 관현악곡인 '볼레로'와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들려준다.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곡 사이클'은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에 이은 새로운 장기 프로젝트로, '관현악법의 마술사'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곡 열두 작품 전곡을 2022년까지 완주한다.

첫 곡으로는 라벨의 작품 중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볼레로'를 연주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케스트라 규모를 대폭 줄인 40인 편성으로 구성, 최수열 예술감독의 편곡버전을 들려준다. 당시 유명 발레리나로 활동하던 이다 루빈스타인을 위해 작곡된 발레음악인 '볼레로'는 스페인의

민속 춤곡인 볼레로 리듬을 도입했으나 스페인적 색채보다는 그 파격적인 구성과 혁신적인 실험들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어서는 두 대의 피아노가 대화를 나누듯 진행되는 선율이 매력적인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모녀인 이경숙, 김규연의 앙상블로 들려준다. 지난 1967년 제네바 국제콩쿠르 입상 후 국제무대에 활동을 시작한 이경숙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대 음악원장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1995년 옥관문화훈장, 2007년 대한민국 예술원상 등을 수상했다. 이경숙은 현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서울사이버대학 피아노과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1999년 바트룩-카발레르스키-프로코피에프 국제콩쿠르 1위, 미주리 서던 국제콩쿠르 2위, 2006년 더블린 국제콩쿠르 준우승과 함께 최고의 협연자상과 모차르트 연주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이름을 알린 김규연은 현재 오푸스 앙상블 멤버, Classical Musicians Network의 Music Director로 활동중이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차이콥스키가 각별히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들려준다. 밝고 우아하며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한 곡으로, 현악만의 순수한 형식미와 균형미가 잘 나타난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 **일 시** 1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1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Preview

독창적 시공간, 아쉬운 감동

부산시립무용단 제82회 정기공연 '소생 Regen'

◆ 이상현 춤 비평가

오랜 기다림 끝에 부산시립무용단이 신임 예술감독과 첫 합을 맞추었다. 작년 11월 예술감독 경선 작품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취임한 상태가 아니어서 이번 공연을 처음으로 잡아야 한다. 지난 12월 4일과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 올린 제82회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소생 Regen>은 추천과 경쟁에 코로나19까지 겹쳐 1년 반이나 걸려 선정된 신임 예술감독의 첫 안무작이어서 부산 무용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것을 증명하듯 거리 두기로 반만 열어 놓은 객석은 이를 동안 빈자리가 없었다.

안무자 이정윤은 <소생>이 “작금의 위기에 처한 인간의 항거(抗拒)”이며 “축원과 발원의 의미가 담긴 가무악극 형태의 축제성 콘텐츠”라고 선언한다. 모두 3장으로 구성했고, 1장은 '비나리', 2장 '12소생사 그리고 소생 키트', 3장 '소생(regen)'이다. 가무악극을 지향한 의도대로 공연 전 홍보에서 영화 '기생충'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 정재일을 내세운 홍보에 비중을 두었다. 주역인 백립이(훈령)는 김미란과 권봉정을 더블 캐스팅했다. 두 주역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권봉정이 주역을 한 5일 공연만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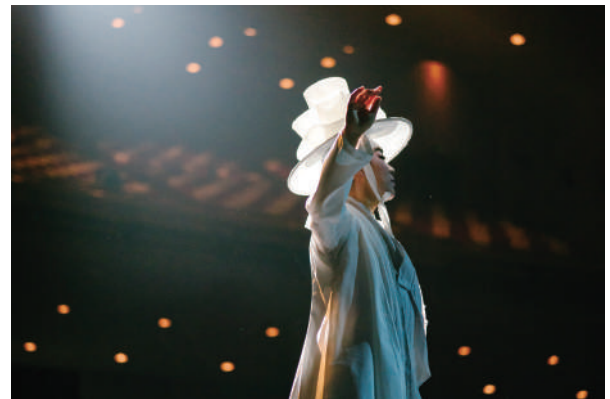
막이 열리면 한 사람이 무대를 가로질러 뛰어가면서 사물 가락에 비나리가 흐른다. 시작부터 이정윤은 조명을 아끼고, 군무의 균형을 섬세하게 무너트



리면서 공간을 만들어 간다. 전작인 <바람>에서 연출한 공간이 열린 경계를 보여주었다면, <소생>의 무대 공간은 닫히지도 열리지도 않는 공간이었다. 살지도 죽지도 않은 죽음과 삶의 중간지대, 과거도 현재도 아닌 비선형적 시간은 절제된 조명과 수직으로 내려와 바닥에 닿을 듯 떠 있는 불안으로 만들어 냈다. 마치 이 시대의 불안처럼 코앞에 있는 안정에 닿지 못한다. <소생>의 강점을 꼽자면 비선형적 시간이 맴도는 이 공간이다. 안무자가 만들어 낸 공간에서 각 춤꾼의 몸성이 발현하면서 스펙터클이 전개된다.

1장은 비나리를 시작으로 '축원과 발원'에 집중한다. 2장이자 인터미션에는 12소생사가 관객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데, 코로나 위기에 항거하는 인간에게 주는 축원이지 싶다. 축원과 발원의 결과는 백립이가 소생하는 것이다. <소생>의 서사는 죽은 백립이를 물리적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다. 백립이의 소생은 위기의 극복이고 항거 의지를 살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다. 그렇기에 <소생>은 뚜렷한 서사 연결이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이미지를 연결하는 고리가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백립이가 살아나는 극적 감동만 있으면 희미한 서사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백립이를 비롯한 캐릭터의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클라이맥스의 긴장과 극적 완결성, 감동마저 약화하였다. 공간과 이미지에만 집중했어도 좋았을 것인데, 서사까지 신경 쓰다가 후반부에 힘이 빠진 것은 '가무악극'을 표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무악극은 그야말로 노래, 음악, 춤이 어우러져 극을 이루는 형식이다. 어떻게든 극적인 마무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캐릭터의 존재감이 필요했다. 캐릭터의 상실은 극적 완결성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주역 캐릭터의 상실은 춤꾼의 연기 문제만이 아니다. 캐릭터를 떠받치는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연출이 이 부분을 감지하고 조정했어야 했다.

가무악극을 표방했을 때 요소 간의 균형은 당연하다. 이때 균형이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출렁이는 것을 말한다. <소생>에서 균형은 음악 쪽으로 기운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음악이라기보다 '소리'가 맞을지 모르겠다. 작품 전반에서 음악의 질주가 빈번했다. 라이브와 녹음 음악은 서로를 배려하지 않았고, 소리가 넘쳐났다. 음악이 들리기보다 쇠소리, 북소리, 장구 소리, 목소리까지 소리가 소리를 덮고, 얹어 누르는 인상을 받았다. 춤은 소리의 늪에서 연신 허우적거렸고 결국 주역 캐릭터의 감정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극이 진



행되고 소리가 이어질수록 안무자가 창조한 독창적 공간마저 소리에 잠겨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시 하는 말이지만, <소생>은 이정윤 예술감독이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과 온전히 소통하면서 만든 첫 공연이다. 이 작품에서 이정윤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았다. 그래서 당당하게 가무악극 형식을 들고나왔다. 서사와 이미지를 오가는 주제 해석, 비현실을 실현한 독창적 공간감, 정교함이 엿보이는 조명, 춤을 이미지화하는 그만의 방식 등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었다. 반면 전개에서 보이는 상투성, 음악, 춤 등 요소 간의 불균형 등 단점 또한 보였다. 어찌 보면 이로써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이정윤은 부산시민 앞에 적나라하게 이력서를 밝힌 셈이다. <소생>에서 이름난 춤꾼으로, 안무가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말했다. 이제 겨우 부산시립무용단의 춤이 이정윤의 말이 되어 관객에게 전달되었다.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춤 작품은 관객과 나누는 대화이다. 어떤 이는 수다가 심하고, 누구는 자기 과시가 있고, 또 어떤 이는 말을 야끼는 식으로 대화의 방식이 제각각이다. 개인끼리 대화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달라야 한다. 자신을 잃지 않고 많은 이의 가슴에 닿는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부산시민은 앞으로 3년을 그와 대화해야 한다.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기대하는 바는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논쟁이 될 수도 있고, 혼잣말로 끝날 수도 있다. <소생>이 먼저 코로나로 지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려고 말을 걸어왔다. 거리 두기가 일상인 시대에 상대방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던가. 그저 고마울 뿐이다.

붉음과 등금의 몸적 변주

2020년 최우수 청년 연출가 선정작 '소나기-잠깐 내린 비'

◆ 최찬열 춤 비평가

춤 동시대의 다른 예술 장르에 우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춤꾼의 몸이 그의 사유나 정신보다 먼저 세계를 감지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을 것이다. 특히, 어려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 춤꾼들의 몸은 세상과 현실을 훨씬 더 예민하게 탐색하는 더듬이와 같다. 그리고 이들 각자의 몸은 다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대한다. '프로젝트 광어'의 공연 '소나기-잠깐 내린 비'(2020년 11월 1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는 청년 춤꾼들의 이런 '몸적 관점'이 잘 형상화된 무대였다. 공연에서 청년 춤꾼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근대화 시기의 한국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 혹은 현대 사회에서 모든 가치의 척도는 돈이며, 우리 역사에서 이것은 산업화 혹은 근대화 시기를 거치며 확립된다. 게다가 이 때는 자본과 권력이 주체를 강하게 포획하는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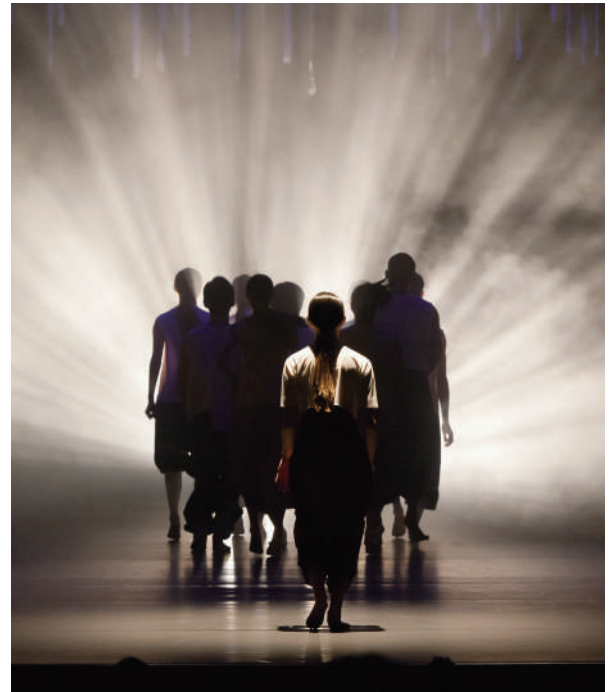
공연에서 청년, 혹은 소년, 소녀는 이 시기를 힘겹게 극복하는 탈주의 존재자들로 그려진다. 달리 말하면, 이들의 춤은 자본주의의 삶의 가치를 몸으로 따져 묻고, 그것을 해체하고 있는 탈주의 춤이다. 공연은 두 세계를, 한편으로는 동심의 세계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른의 세계를 축으로 놓고 진행된다. 이 두 세계는 공연의 처음과 중간 무렵에 무대 배경 막에 투사된 두 개의 짧은 영상으로 더 쉽고 간결하게 설명된다. 관객은 춤꾼을 따라서 두 세계를 넘나든다. 관객을 동심의 세계로 데려가는 매개체는 붉게 빛나는 큰 공(LED 비치볼)이다. 깜깜한 무대에서 춤꾼들이 들고 움직이는 크고 붉은 공은 관객들을

Review



동심의 세계로 안내한다. 이와 대비해, 보이스 뮤지션(문수경 분)이 들고 있는 붉은 작은 공(핑거볼 라이트)은 어른의 세계를 상징한다. 이 세계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으로, 이때 붉은 공은 소년, 소녀를 포획하는 강력한 도구로 이용된다. 곧, 붉은 공은 동심의 세계에서는 마치 반딧불이마냥 순수성을 상징한다면 어른의 세계에서는 탐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붉은 공 혹은 붉음과 동금은 공연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상징이며, 공연에서 그려진 대비되는 두 세계의 성격을 드러내는 매개체이다. 붉음과 동금의 의미는 두 세계를 관통하며 변이된다. 곧 의미의 변이에 의해 두 세계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붉음의 의미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소녀(정혜원 분)에게로 옮겨간다. 여기서 붉음은 열정과 관능을 의미한다. 소녀는 원래 순수하기만 한 존재자가 아니었으리라. 그녀의 순수함 밑에는 열정과 관능도 몰래 따리를 들고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공연은 이 점을 놓친다. 그러기에 제대로 짜인 소녀의 춤을 볼 수 없었다. 다층적이지 못한 이야기 구조가 몸적 상상력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아쉬움은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계속된다. 공연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커다란 붉은 달은 그 자체로 큰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달이 가진 복합적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다. 붉음과 동금의 의미는 이 장면에서 최대한 확장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동금 달은 순수함, 탐욕, 열정, 관능뿐만 아니라 꿈, 희망 등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고 붉은 달이 가진 다층적 의미를 다채로운 춤으로 변주할 수만 있었다면 더 훌륭한 공연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공연은 흥미진진했고, 청년 춤꾼들의 열정과 의욕, 노력과 패기가 가득 찬 무대였다. 미니멀한 현대춤 동작에 비비이 등 하위문화의 춤을 적절히 섞은 안무가 좋았고, 특히 무거운 주제를 발랄하고 경쾌한 몸짓으로 잘 풀어낸 연출력이 돋보였다. 춤은 신나고 메시지는 뚜렷했다. 아쉬움도 있었다. 지나치게 화려한 조명과 빠른 템포의 음악은 종종 움직임을 가리고, 산만한 무대장치는 의미를 혼란스럽게 했다. 또한, 강력한 이야기 구조가 춤을 억압했다. 춤 공연에서 스토리텔링은 일차적 자료는 될지언정 궁극적 요소는 아니다. 이야기는 춤-이미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이차적이다. 중요한 것은 춤-이미지가 일차적이라는 사실이며, 춤 그 자체가 가진 강도와 힘이다. 그런 점에서 소년(김평수 분)의 솔로 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부드럽게 우면서도 절도 있는 그의 춤은 이야기 구조에 쉽게 매몰되지 않는



다. 외려, 그것을 뚫고 나오는 힘이 있고, 관객들이 스토리텔링 너머를 보게끔 한다. 그곳은 이야기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감각의 영역이다. 그의 춤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몸짓-감각은 해석되거나 이해되기보다 감응으로 퍼져나가는 전염력이다. 해석으로부터 미끄러져 감응으로 향하는 매혹적인 춤이다. 그 춤 앞에서 우리의 관습화된 감성 체계는 허물어진다.

현실을 대하는 비판적 시선이 매섭고, 현실을 통찰해 춤으로 치환할 줄 아는 재능을 가진 청년 춤꾼들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공연이었다. '프로젝트 광어'의 젊은 춤꾼들이 현실과 치열하게 부딪치며 자신만의 춤 메소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지역 춤의 장래는 한층 더 밝을 것이다. 청년 춤은 주류 메소드를 답습하려 애쓰기보다는, 기존의 춤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숨기고 있는 불구성을 드러내는 춤적 소수화의 실천이다. 그럼으로써 관습적으로 파급되고 전파되는 주류 취향에 충격을 가하고 변형을 꾀하는 춤이다. 기존의 춤이 가진 결핍성과 불구성을 진단하면서 새로운 춤적 주체의 유형을 제시하고 입증하는 자가 청년 춤꾼인 것이다. 이를테면 청년 춤꾼은 기존의 춤 역사로부터 등을 돌리는 '반시대적' 춤꾼이며, 그럼으로써 새로운 춤적 가치와 새로운 몸짓-감각을 창안하는 전복의 춤꾼이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일 시 | 1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연주회를 앞두고 오케스트라가 실제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1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리는 '2021 신년음악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최수열 예술감독과 함께 신년음악회 프로그램 중 한 곡인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의 리허설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연주를 앞두고 단원과 지휘자가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모습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쉽게 접할 수 없는 리허설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예술감독/최수열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1회 정기연주회
2021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2021년 신년축을 맞아 새해에 거는 기대와 희망을 담아 마련한 부산시립교향악단 '2021 신년음악회'. 대한민국 1세대 대표 피아니스트 이경숙과 그녀의 딸이자 서울대학교 교수 김규연의 협연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프로그램

- 라벨/블레르(축수버전, 최수열 편곡)
- 모차르트/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 차이콥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황미리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1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황미리 010-9371-8987



풍부한 음색과 맑은 소리로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플루티스트 황미리와 함께 떠나는 문학과 함께하는 플루트 시리즈 세 번째 무대.

'BookNFlute', '오페라를 읽어주는 여자'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한 '신화 속 이야기'는 그리스-로마 신화 속의 팬과 시링크스의 이야기, 목신의 오후, 물의 요정 운디네 등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신화 속 이야기를 플루트 연주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이다.

프로그램

- 드뷔시/시링크스
- 드뷔시/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 무케/판의 플루트
- 앤더슨/요정의 노래와 춤
- 라이네케/운디네
- 피아노/유영옥 • 해설/김윤선

장한별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월 19일 화요일 오후 3: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장한별 010-6565-1962



충남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뉘른베르크 음악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장한별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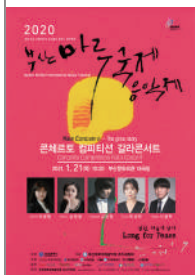
장한별은 독일 유학 시절 2018 Konzert von Aktuelle Musik im Neus Museum, 2019 Haus Marteau Masterclass Prof. Arnulf von Arnim, 2019 Konzert Saal im Wohnstift Rathsborg Erlangen에서 연주했으며, 현재 대전피아노연주회, 피아빌레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 하이든/피아노소나타 제60번 다장조
- 쇼팽/바르카롤 올림바장조 작품 60
-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21번 다장조 작품 53
- 리스트/위안 제3번

2020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

일 시 | 1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문 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0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 콘서트 여섯 번째 무대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바 있는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

이번 무대는 국내외 연주자들의 경연을 통해 우수한 연주자를 발굴하기 위한 무대로, 본선에 오른 연주자들이 마지막 우승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 지휘/이민형(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바이올린/이은빈 • 오보에/강민정
- 클라리넷/김민찬 • 플루트/최서희
- 피아노/이정혁

트리오 피아체 후원의 밤

일 시 | 1월 31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순수한 음악에의 열정과 풍부한 음악적 기량으로 피아노 트리오의 세계와 깊은 감동을 선사해온 트리오 피아체 후원회가 2021년 새해를 맞아 마련하는 후원의 밤.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첼리스트 정윤혜, 피아니스트 박정희로 구성된 트리오 피아체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오서너스 아트홀 초청 연주회, 대구가톨릭대학교 초청 레저 콘서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시리즈 선정, 영산아트홀 우수연주단체 선정, 부산MBC목요음악회 초청연주 등 다수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났다.

프로그램

- 바흐/첼로모음곡 제1번 BWV 1007
-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30번
- 라벨/치간느 등

음악

수아트홀 기획공연

일 시 | 1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9일 토요일 오후 3:00 수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수아트홀 744-1415

8일(금) Dream Concert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의 다문화가족 및 문화소외 계층의 아동들을 위해 마련하는 수아트홀 기획공연 '드림 콘서트'.

- 출연/김은수, 박만영, 서숙지, 위은정, 에델현 악사중주



9일(토) 살롱 더 뮤직 콘서트

2021년 새해를 맞아 수아트홀이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담아 마련한 기획공연 '살롱 더 뮤직 콘서트'.

특히 이번 무대는 해운대구청 복지과를 통하여 해운대구 지역의 다문화 가정과 문화 취약계층을 초청, 음악을 통한 따뜻한 사랑을 나눈다.

연극

연극 연애하기 좋은 날

일 시 | 2020년 11월 19일(목)-2021년 1월 17일(일)
평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5:00, 7:30, 일요일 오후 2:30, 5:00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애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청춘남녀의 짜릿한 연애이야기 '연애하기 좋은 날'.

여자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자신하는 남자 지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랑할 수 있다는 여자 시연, 지후에 대해 남아있는 기억이라고는 좋지 않은 기억뿐인 시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지후는 과거 연인시절의 이야기를 조작하기 시작한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호감으로 변하는 와중 시연은 잊혀졌던 이별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데...

빙어리장갑

일 시 | 1월 8일(금)-1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일요일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팩토리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위너스아트컴퍼니 010-5268-2367



스테디셀러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는 연극 '러브 액츄얼리' 작가 이민혁의 두 번째 로맨스극 '빙어리장갑'.

승진은 군대를 막 전역한 예비역이다. 복학까지 남은 2주간 신나게 놀 생각뿐인 그,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가는데... 시끄러운 스테이지의 한 쪽 구석에서 있는 이레와 눈이 마주치자 작업을 걸어보지만 승진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이레.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빛의 속도로 카톡을 쓴 뒤 보란 듯 그의 얼굴에 들이댄다. '나 말 못해', 엄청난 타자 속도로 수다를 떠는 이레의 말솜씨에 승진은 어느새 불편함 없이 대화를 나누는데...

말은 못해도 세상 말 많은 여자와 어쩌다 로맨스에 빠진 남자의 유쾌한 로맨스극이 펼쳐진다.

Life and Death-the old, old story 삶과 죽음-아주 오래된 이야기

일 시 | 1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민주공원 소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예술집단C 010-2591-0624



여러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협업을 통해 창출한 융·복합형 예술무대를 선보여온 예술집단C의 2021년 창작무대 'Life and Death-the old, old story'.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죽음을 Theatrical performance 형식으로 신체의 움직임과 전통연희, 라이브연주, 영상 등이 어우러진 무대이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지난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학살사건이 일어난 지역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68곳에 이르지만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정부차원의 발굴은 13곳으로 끝났고, 민간인 공동조사단은 5곳(2018년 4월 기준)을 발굴했을 뿐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민주화운동, 4·3항쟁, 세월호 참사 등 죽음으로 내몰려야 했던 그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그 진실을 찾기위한 그들의 족적을 따라간다.

예술집단C는 2015년 부산문화재단 다원예술분야 지원사업 선정작 '살(The Flesh)'을 시작으로 2016년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지원사업 선정작 '토끼 h의 시간', 2017년 '사랑...짓하다', 부산, 타이베이, 일본 협업작업 '기밀 해제 판도라(解密. 潘朵拉)'을 선보인 바 있다.

- 작, 연출/황지선 • 출연/전성호, 김여진
- 음악감독, 연주/타무라 료
- 프로젝션 맵핑, 촬영/송지훈



극단 연 제16회 정기공연 시라노

일 시 | 1월 14일(목)-2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문화락 1600-1602



지난 2009년 10월 창단된 후 이듬해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창작무대를 올려온 극단 연의 16번째 정기공연 '시라노'. 19세기 작가 에드몽 로스탕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이번 무대는 정치적 풍자와 과학적 공상을 결합한

작품을 써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시라노 드 베르주락의 생애를 모티브로, 빼어난 칼솜씨와 말솜씨를 가졌음에도 '거대한 코'를 지닌 컴플렉스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룩산느에게 보내는 크리스티앙의 편지를 대필해주는 주인공 시라노의 가슴 아픈 사랑을 그려낸 작품이다.

- 연출/김학준
- 출연/배진만, 김수경, 김학준, 김상호, 장민

행사

1월 오페라바움 영상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5천원)

문의 | 오페라바움 722-9597

...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2021년 첫 1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오페라 시리즈를 오페라

바움 대표 심성섭의 상세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1일(금) 신년특집 뮤지컬 고전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8일(금) R.슈트라우스 '살로메'

15일(금) R.슈트라우스 '엘렉트라'

22일(금) R.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29일(금) R.슈트라우스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영광도서 주최 정두환의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음악에서 찾은 삶의 철학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영광도서 문화홀 1관

입장료 | 무료

문의 | 정두환 011-574-0423



2020 제21회 부산문화대상을 수상한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로, 지난해 12월부터 서면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열리고 있다.

프로그램

5월(753회) 평균(平均)과

균형(均衡)의 음악바하 이야기

12일(754회) 평등(平等)과 자유(自由)의 음악베토벤 이야기

19일(755회) 보편성(普遍性)과 개별성(個別性)의 음악브람스 이야기

26일(756회) 이달의 책읽기 '레너드 번스타인: 정치와 음악 사이에서 길을 잃다 (배리 셀즈 지음, 함규진 옮김, 심산)'

김옥균의 힐링클래식명곡여행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 3개월 15만원

문의 | 롯데백화점문화센터 부산본점 810-2351~2, 010-6367-0149

...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음악 공연실황 영상감상회.

프로그램

베토벤 '웰링톤 승리', 차이콥스키 '1812년 서곡' 비발디 '바순협주곡 마단조', 하이든 '트럼펫협주곡'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슈만 '피아노협주곡 가단조'

특집 '세계의 유명여성지휘자', '추억의 명지휘자-레너드 번스타인 편'

월드뮤직 특집 '아일리시음악&켈틱클래식음악 하이라이트' 등

1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화요일 오후 7:00,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입장료 | 수강료 1만5천원

(문자예약필수, 윤산의 논어아카데미, 목요일의 브런치는 무료)

문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

5일(화), 12일(화), 19일(화), 26일(화) 오전 11:00 윤산의 논어아카데미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11일(월) 오후 7:00 철학과 기술, 특이점은 오는가? '영화엑스마키나'

강사/김남호(울산대 철학과 교수)

12일(화) 오후 7:00 아티스트 토크 '보여주는 혹은 보여주지 않는 이야기'

강사/손대광(사진가)

14일(목) 오전 11:00 인디영화와 함께하는 하루 '단편영화수박, 부자(父子), 어떤 오후, 하루'

18일(월) 오후 7:00 토크 콘서트 '기타로 배우는 달콤한 인생'

강사/박기철(경성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9일(화) 오후 7:00 작은 생명의 시인, 고바야시 잇사(小林一茶)의 하이쿠미학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21일(목) 오전 11:00 김비주와 김우호의 북토크_봄길, 영화처럼(김비주 쫄, 좋은땅)

25일(월) 오후 7:00 영화 '사이드 웨이'를 통해본 와인과 사랑

강사/심진호(신라대 교양과정대학 교수)

26일(화) 오후 7:00 패션, 영화를 노래하다.베토벤과 연인들의 패션 '영화_불멸의 연인'

강사/진경옥(패션디자이너, 동명대 패션디자인학과 명예교수)

28일(목) 오전 11:00 정해성의 문화공간, 감동과 공감 | 자유와 해방의 전주곡 프렐류드

강사/정해성(문학박사, 문화평론가, 청도 문화공간 Raum-Y 대표)

전시

BMA 소장품 하이라이트 2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혼자였다

일 시 | 2020년 7월 17일(금)

-2021년 2월 14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740-4242

...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중 2000년대 전후의 인물화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BMA 소장품 하이라이트' 두 번째 전시.

작품 속 '인간'의 모습은 시대적 상황과 표상이 내재되어 있으며 예술가의 세계관이 반영된 '말하는 자'이다. 현대의 예술가, 인간이 바라보는 세상은 소비자본주의, 권력과 제도의 공간, 이데올로기, 치열한 일상 등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속의 인간은 인간성 회복, 욕망의 실현, 분열과 소외, 투쟁의 모습으로 예술가 특유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번 전시의 동시대 현대미술 작품 속 인간은 세상을 어떻게 드러내고, 저항하고, 희망하는지를 보여준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기획전 유치(幼稚)한 물고기

일 시 | 2020년 9월 8일(화)-
2021년 2월 28일(일)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문의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553-4944



평소 보기 힘든 어린 물고기의 실물 표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로, 실물 표본과 다양한 디지털 자료 등을 통해 우리 바다에 분포하는 어린 물고기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상흔을 넘어 The Scar

일 시 | 2020년 9월 25일(금)-
2021년 2월 28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실 및 로비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740-4245

홍순명 개인전 흔한 믿음, 익숙한 오해

일 시 | 2020년 11월 20일(금)-
2021년 1월 3일(일) 조현화랑
문의 | 조현화랑 746-8660

소울아트스페이스 개관 15주년 기념전 손봉채展 '내 인생의 나무'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2021년 2월 17일(수) 소울아트스페이스
문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독보적인 입체회화의 장르를 개척한 손봉채 작가 작품전 '내 인생의 나무'. 산업화의 희생자로 개발에 밀려 이리저리 떠도는 인생에 대한 강한 연민을 담은 '이주민' 시리즈와 최근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꽃들의 전쟁' 시리즈까지 그의 입체회화 흐름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부산박물관 제3회 신수유물 소개전 그릇과 꽃가지를 그려 복을 빌다

일 시 | 2020년 10월 13일(화)-
2021년 2월 14일(일)
부산박물관 2층 미술실
문의 | 부산박물관 610-7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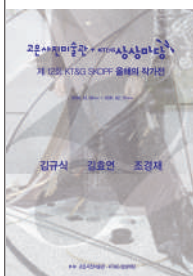
부산박물관이 기증받거나 구입한 유물과 보존처리가 끝난 유물 중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한 유물을 새롭게 소개하는 '신수유물 소개전'. 이번 전시에서는 중국의 고동기(古銅器: 고대 제사에 쓰이던 청동으로 만든 제기)나 진귀한 도자기에 꽃가지, 과일, 채소 등을 곁들인 일종의 정물화가 그려진 10폭 병풍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를 소개한다.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빌 비올라, 조우

일 시 | 2020년 10월 21일(수)-
2021년 4월 4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실, 아우화공간 1층 제3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740-4243

고은사진미술관+KT&G 상상마당 제12회 KT&G SKOPT 올해의 작가전 -김규식, 김효연, 조경재

일 시 | 2020년 12월 5일(토)-
2021년 2월 17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한국사진의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고은사진미술관과 KT&G 상상마당이 미래의 한국 사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작가들과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제12회 KT&G SKOPT 올해의 작가전.

지난 2012년 첫 선을 보인 후 그동안 사진의 전통적 가치와 지속적인 실험정신을 견뎌온 신진 사진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한국사진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며, 올해 전시에서는 'KT&G 상상마당 한국사진가 지원 프로그램'에서 최종 선정된 김규식, 김효연, 조경재 작가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부산박물관 2020년 특별전 노랫말-선율에 삶을 신다

일 시 | 2020년 11월 10일(화)-
2021년 1월 10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전실
문의 | 부산박물관 610-7142



보다 많은 대중에게 노랫말의 의미와 가치를 소개하고자 부산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전. 2020년 상반기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개최된 '노랫말-선율에 삶을 신다'의 부산 순회전시로, 대중가요 음반이나 가수가 아닌 '노랫말'이라는 언어 요소를 조명한 특별한 전시이다.

선율에 맞춰 부르기 위해 쓰인 노랫말은 우리나라 대중가요 100년의 역사 속에서 대중과 함께 성장하면서 대중의 삶을 대변하고 공감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전시는 대중가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2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대중의 삶과 함께 다양한 변화를 겪어온 노랫말을 각 시대 별로 4장으로 나누어 소개하며, 마지막은 미디어 아트로 구성하였다.

아세안거리음식: 호로록 찹찹 오물오물

일 시 | 2020년 12월 17일(목)-
2021년 4월 11일(일) 아세안문화원
문의 | 아세안문화원 775-2001



아세안 거리음식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전 '아세안 거리음식: 호로록 찹찹 오물오물'.

한국 현대미술가 5팀과 태국 현대미술가의 창의적인 해석과 시청각적 번역을 꾀한 신작들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아세안

국가에서 경험하고 느낀 다채로운 거리음식에 대한 영상, 사운드,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품들을 통해 아세안 거리음식이 가진 지역의 특색과 지역성을 뛰어넘는 풍부한 풍부한 콘텐츠들이 현대미술가들에게 어떤 영감으로 작용했는지 살펴봄으로써 각자가 간직한 아세안 여행의 기억과 거리음식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



부산의 탄생

유승훈 지음 / 생각의힘
512p / 2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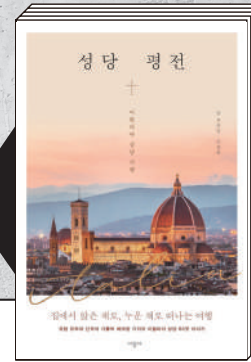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부산> <부산은 넓다> 등 부산 역사를 알리는 책을 써왔던 민속학자 유승훈 씨가 또한 권의 부산 책을 더했다. 이번에는 현대, 근대, 조선의 부산을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다. 한반도 동남쪽 끝에 위치한 부산은 어떻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무역항이 되었을까. 유승훈 씨는 부산의 위상이 어느 날 갑자기, 온 좋게 높아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리적 특성과 퇴적된 시간, 그리고 그 공간을 살아낸 사람들의 역사가 모여 지금의 부산이 만들어진 것이다. 부산은 삼포를 개항하고 왜관을 설치하여 근대 문물의 거센 파도를 맞이한 지역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과 가까운 위치 탓에 부산에 터를 내린 일본인들 틈에서 많은 설움을 견뎌냈다. 6.25 전쟁 시기에는 피란민들을 받아들이고 피란수도 기능을 했다. 그 이름처럼 부산(釜山)은 대한민국의 가마솥이었다. 가마솥이 집안살림에서 가장 중요했듯이 부산은 우리 역사의 중대한 순간마다 외부의 뜨거운 변화와 아픔을 끌어안았다. 이 책은 부산의 역사를 총망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세대의 역사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간다. 실감나는 사진과 사료들로 들려주는 '진짜' 부산을 만나는 책이다.



노래가 필요한 날

김창기 지음 / 김영사 / 324p
1만 4천 800원

포크밴드 '동물원' 출신 싱어송라이터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창기 씨가 음악과 심리학을 함께 담은 책을 펴냈다. 김창기 씨는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랫말, 서정성 짙은 멜로디로 <널 사랑하겠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등 오랫동안 사랑받는 히트곡을 만들었고, 김광석의 <기다려줘> <그날들> 등 우리나라 가요계에 한 획을 그은 여러 명곡을 남겼다. 노래 속에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고 담백하게 담아왔던 그가 이 책에서 노래에 끌리는 인간 심리를 설명한다. 듣는 사람의 가슴을 적서주는 노랫말의 울림에 심리학의 지혜를 더해서 '어떻게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싶을 때, 사랑에 아프고 힘들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였을 때, 살다가 예기치 못하게 만나는 거센 삶의 폭풍우에 휘청일 때 들으면 좋은 노래 77곡을 소개했다. 멜로디로 말을 걸며 감정을 움직이고, 좋은 이야기까지 담긴 노래는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도구이다. 노래와 함께 들려주는 심리학은 특별한 공감을 느끼게 하고, 생각의 폭을 깊고 넓게 한다. 진솔한 노래의 '감성'과 냉철한 심리학의 '이성'이 어우러지는 책이다. '김창기의 선곡표'이다.



성당 평전

최의영, 우광호 지음 / 시공사
436p / 1만 8천 원

우리 문화재의 많은 비중이 불교미술에 있다면, 유럽 문화재의 보고는 중세에 세워진 성당에 있다. 그중 이탈리아의 성당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책이다. 찬란한 유럽 문화의 중심을 이루었던 이탈리아 주요 도시의 성당 80곳을 만날 수 있다. 로마의 교황청립 학교에서 수학한 최의영 신부와 가톨릭 베테랑 기자 우광호 씨가 함께 썼다.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여행가기가 쉽지 않지만, 이탈리아는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이다. 이 책은 피렌체·나폴리·베네치아·바리·밀라노 등 주요 5개 지역을 다룬 장으로 구분됐다. 각 장은 크고 작은 성당·세례당·종탑을 비롯한 종교 건축물을 찾아간다. 각 성당의 이름이 품고 있는 사연, 각 성당에 해당되는 가톨릭 성인의 삶과 죽음, 그들의 유해를 둘러싼 공방과 유럽사의 관계, 서민들의 일상과의 관계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그래서 <성당 평전>이라고 제목을 정했다. 찬란한 건축과 예술작품, 각 성당이 지어질 당시의 정치적 알력과 경제 흐름, 종교와 신앙이 유럽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한다. 서구문화를 아는 데도 도움이 된다. 4백여 컷의 사진은 두 번의 밀레니엄을 지나온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기금 지원 LED 영상시스템 설치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에서는 2020년 지정기부금 사업으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 LED 영상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번에 대극장 무대 프로시니엄 기준 좌·우측에 설치된 객석 송출용 LED 영상시스템은 공연에 필요한 영상제공은 물론 자체공연 홍보 및 관객들을 위한 안내방송 등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LED 영상시스템이 설치된 지난 12월 10일 열렸던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에서도 공연 중이던 오페라 아리아의 원어와 해석된 한글 자막이 영상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면서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변원탄 회장은 “이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을 시작으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모든 극장에 LED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후원회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가입

- (주)갤러리안경, (주)부영연육,
(주)엘폴리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
607-6114, www.bscc.or.kr



기업의 품격을 높이고 법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에 (주)갤러리안경과 (주)부영연육, (주)엘폴리콤 등 3개 업체가 가입했다.

이번에 가입한 (주)갤러리안경(대표이사 김기곤)은 지난 1990년 창립 후 차별화된 서비스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브랜드를 개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 연육전문 무역유통회사인 (주)부영연육(대표이사 허재구)은 1994년 설립 후 현재 6,000톤 규모의 최신 냉동, 냉장시설 및 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세계 각지의 연육을 수입공급해오고 있으며, (주)엘폴리콤(대표이사 옥태균)은 플라스틱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체FHG, 지난 1989년 설립된 후 향토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초 신설된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은 연회비에 따라 루비 레드(Ruby Red), 에메랄드 그린(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Sapphire Blue)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가입 시 기업로고가 표기된 멤버십 전용 카드 및 법인회원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가 제공된다. 또한 등급에 따라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의 공연 및 전시 입장료, 아카데미 수강료, 주차료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월간 <예술의 초대>, 회관 내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홈페이지 및 공식 SNS 등 (재)부산문화회관만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기업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부산문화회관 전용흡연실 설치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객들을 위한 고객센터의 일환으로 중극장 인근 흡연구역에 전용흡연실을 설치했다.

이번 전용흡연실 설치에 KT&G가 추진하는 선진흡연문화 정착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임으로써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객들에게 보다 나은 고객센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의 간판 '공연기획팀'의 하루

박승빈 (재)부산문화회관 공연기획팀 대리

하루의 시작 '오전'

오전 9시, 출근 후 따뜻한 커피와 함께 덜 깬 잠을 마저 쫓아낸다. 컴퓨터를 켜고 지난 밤에 온 메일과 각종 공연제안서, 기타 공연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한민국에서 연간 진행되는 공연만 1만 건이 넘는다. 공연기획팀에서는 그중에서도 0.5% 정도를 엄선하여 매년 시즌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 특히 연말은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막바지 기간이기도 해서 국내외 공연예술계 동향을 분석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에 공연이 없는 날은 오전에 차분히 앉아 꼭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동향분석이 끝나면 공연 티켓 판매량을 살펴 본다. 현재 진행 중인 공연의 하루간 티켓 판매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공연의 좌석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판매량이 부족한 공연의 경우 홍보를 더 할 것인지, 티켓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모션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팀원들과 회의를 가지기도 한다.

요즘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2021-22 시즌 프로그램 회의이다. 공연기획팀 전 팀원뿐 아니라 대표님, 문화사업본부장님까지 모두 모여 기획방향을 정하고, 프로그램의 콘셉트와 세부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당연히 이 시간은 사전준비가 부족하더라도 하면 종종 깨지는(?) 긴장의 시간이기도 하다. 대표님이 원체 꼼꼼하셔서 작은 것 하나 허투루 넘기시지 않는다. 때로는 그런 철두철미함이 공연기획팀을 힘들게도 하지만 관객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기도 한다. 이런 수차례 과정을 거쳐 (재)부산문화회관의 시즌 프로그램이 더욱 탄탄하게 구성된다.

공연이 있는 날이면 오전은 정말 바쁘다. 무대세트, 소품, 악기 등이 주로 오전에 들어온다. 공연 전 사전회의를 통해 미리 협의한 사항이라도 공연예술 특성상 현장에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공연기획자는 웬만하면 현장을 지키며 변화하는 상황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연기획 업무를 사무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람도 많이 만나야 하고, 공연도 잘 알아야 하며, 무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겉으로 봤을 때는 고요해 보일지 몰라도 치열한 직업이다.



물 위의 백조, 그러나 광란의 물갈퀴질 같은 ‘오후’

점심식사를 하며 잠깐 숨을 돌린 후 오후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다. 각종 민원과 공연 문의 등의 전화가 쏟아진다. 고객지원 센터가 새롭게 생기면서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그래도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7월 기획공연으로 국립창극단의 <변강쇠 점찍고 옹녀> 공연 준비 중에 외국인에게 전화 문의가 왔을 적도 있다. 물론 외국인은 영어로 질문을 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쏟아지는 영어의 폭포 속에서 과거의 소싯적 영어를 배우던 기억을 더듬으며 질문의 요지를 파악했다. 생각보다 문의사항은 간단했다. 공연을 보고 싶었는데 외국인을 위한 영어 자막이 따로 있는지와 어떻게 예매를 하는지에 대해서였다. 짧은 영어로 자막이 준비되어 있고, 예매는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고 정말 짧게 대답해줬다. 공연 전날 예매티켓 내역을 확인할 때 그 외국인 관객 이름이 있었을 때에 뿌듯했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공연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공부도 틈틈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전화응대 외에도 공연계획서, 정산 등 행정 업무도 쉴 새 없이 해야 한다. 공연시간이 다가올수록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빠진다. 예매티켓 정리부터 현장매표를 위한 발권기 세팅, 분장실 점검, 출연진과 외부스텝 관리 등 무대 위 공연이 최상의 상태로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다. 공연 리허설 또한 챙겨봐야 한다. 살아 숨쉬는 예술인 공연은 인생과도 같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기획자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도 갖춰야 한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관리 등 더욱 신경써야 할 사안들이 많아졌다.

공연이 무사히 시작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늦게 오는 관객들을 기다려야 하며, 그들의 중간입장 시간 등도 무대감독과 확인해야 한다. 발권된 표는 몇 장이며, 찾가지지 않은 표는 몇 장인지, 그리고 극장 내부와 로비의 온도는 적당한지, 무대 위 예술가들이 공연하기에 너무 덥지는 또는 춥지는 않은지도 살펴봐야 한다. 공연 중간 휴식시간 역시 관객들을 위해 대기해

있어야 한다. 공연장은 관객의 컴플레인부터 무대사고까지 언제든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의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무대 밖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관객이나 출연진 앞에서는 조급함을 보이지 않고 항상 여유롭고, 평안한 상태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대해야 한다. 고요한 수면 위에 떠있는 백조가 수면 아래에 선 실 틈 없이 물갈퀴질을 하는 모습과 같다. 비로소 공연이 끝나고 극장을 정리하고 나면 기나긴 공연기획팀의 하루 일과가 끝난다. 늦은 시간이지만 공연을 보고 즐겁게 돌아가는 관객들을 보면 뿌듯함이 온몸을 감싼다. 특히나 기획공연을 자주 관람하시는 관객 중에 자주 오시는 노신사분께서는 공연이 끝나고 항상 극장을 나가시면서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라는 인사를 잊지 않으신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짧은 인사 속에서 보람을 느낀다.

공공극장에서 근무하는 만큼 소명의식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재)부산문화회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상기하는 것은 일을 하는 데 있어 큰 원동력이 된다.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는 일 또한 중요하다. 관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공연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객들을 위해 좋은 공연과 관람서비스로 보답하는 것이 우리 공연기획팀의 소명이기도 하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연기획팀 박승빈 대리

초·중·고·대·대학원까지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군복무를 제외하고는 부산을 떠나 본적 없는 부산토박이. 현재 부산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에 있습니다. 내 고향 부산에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늘 노력하는 직원이 되고자 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부산문화회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17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후 그동안 직장 내 근무환경 개선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온 결과이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올해도 구성원 모두가 배려와 존중으로 하나되는 ‘즐거운 직장 만들기’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번 신년호부터 새롭게 연재되는 <○○○의 24시>에서는 직원 ○○○의 하루 일과를 통해 부서간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365일 숨가쁘게 돌아가는 극장의 이모저모를 시민들께 소개하고자 한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가 함께하는 제2회 부산청소년 및 시민 공연감상문 공모전 수상작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이하 후원회)가 함께하는 제2회 부산청소년 및 시민 공연감상문 공모전에서 일반부 대상에 김정완(부산시 동래구)이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재)부산문화회관이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즌 프로그램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공연 관람을 통한 관객 개발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행사로, 일반부 대상 1명(중·고등부 수상자 없음)을 비롯해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등 총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제2회 부산청소년 및 시민 공연감상문 공모전과 함께 진행된 '제2회 창작극대본 공모전'은 희곡부문에서 최해인의 '화개회사-그렇게 벚꽃은 피고 또 지고'가 선정됐으며, 창작음악극, 무용극 부문은 심사결과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제2회 부산청소년 및 시민
공연감상문 공모전 각 부문 수상자**

대상(부산광역시장상) 김정완 **최우수상** 이지윤, 박진우 **우수상** 정소윤, 김하라, 김래영
심사위원 : 동길산(시인), 박진홍(음악평론가), 김남석(부경대학교 교수)

심사평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해에 이어 후원회와 함께하는 제2회 부산청소년 및 시민 공연감상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올 한 해, 부산문화회관에서 시즌프로그램으로 무대에 오른 공연에 대한 공연 감상문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공연계의 현실을 반영하듯 작년에 비해 공모작의 수가 많지 않았다. 특히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큰 혼란이 있었던 만큼 청소년 부문의 참가자가 거의 없어 아쉬움이 컸다.

공연 감상문은 공연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을 자유롭게 적는 글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연을 일정한 가치 기준에 따라 설득력 있게 평가하기도 하고 공연이 가지게 되는 다양한 가치를 조명하기도 한다. 감상문의 일반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심사위원들은 지난해에 비해 감상문의 수준이 높아졌고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참가작들의 상당수는 감상이나 비평의 서술보다는 공연 자체의 해석에 치중하면서 여러 방면의 가치를 읽어 내지 못했다. 일부는 공연이 아니라 공연을 구성하는 원작의 이야기에 대한 분석 및 감상에 치중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너머 보이지 않는 주변을 감지하고 연결하여 그 가치와 느낌을 언급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었다.

심사위원들은 <햄릿이 묻고 리어가 답하다>를 대상작으로 선정하였다. 화려한 형용사의 사용이나 멋드러진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생각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감상을 써 내려 간 것이 오히려 다른 감상문과 비교되는 점이 었다. 필자의 경험과 주관적인 감상, 객관적 사실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다. 원작자인 셰익스피어와 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필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공연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런던의 공연장에 대한 회고와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생각, 작품과 공연, 그리고 배우에 대한 생각들이 잘 드러났다. 이는 스토리에 집중을 하거나 느낌에 한정하고 있는 다른 감상문들에 비해 우수한 점으로 평가되었다.

코로나19는 고개를 꺾지 않고 삶의 옆구리로 더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삶과 예술의 향기 묻어나는 공연은 우리 마음의 백신이다. 힘든 상황이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여유롭게 건강한 마음을 지켜 갈 수 있기를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감상문들이 투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음악평론가 **박진홍**

햄릿이 묻고 리어가 답하다

부산문화회관의 'NT Live_햄릿' 공연이 특별한 이유

김정완 일반부 대상(부산광역시장상)

5월의 마지막 날, 토요일. 2층에 딱 한 자리 남은 마지막 좌석이다. 마지막 날, 마지막 표, 이런 경험도 즐겁다. 연극이지만 영화처럼 보는 'NT(National Theatre) Live' 공연이 부산문화회관에서 있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부산 생활이 아직 익숙하지 못하여 많은 공연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2월 이후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공연 자체가 중단되어 아쉬움이 많았는데 각종 공연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부산문화회관도 공연을 재개하였다. 예술공연에 목마른 차에 너무 반갑고 좋은 기회였다. 'NT(National Theatre) Live' 공연은 런던의 사우스뱅크에 위치한 영국국립극장이 2009년 세계 최초로 연극 공연실황을 라이브로 촬영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2천여 개의 극장에 보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관람형식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서울국립극장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고 한다.

작년에 영국 런던의 바비칸 센터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보았다. 영국 공연예술계의 흐름은 런던의 템즈강을 사이에 두고 나뉜다. 남쪽은 사우스뱅크, 북쪽은 바비칸 센터이다. 런던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복합예술센터인 바비칸 센터는 현대미술, 건축, 패션 등 실험정신이 가득한 고급 전시회가 풍성하고 주변의 공원과 호수, 카페 등의 시설이 좋다. 바비칸 센터의 셰익스피어 공연은 티켓 값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나처럼 케임브리지에 집이 있으면 런던까지 오가는 기차비와 시간까지 계산하면 런던 공연은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없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한국의 부산에서 느긋하게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의 문화공간에서 편하게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관람하는 기회가 있다니 넘치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다.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 몇 차례 셰익스피어 공연을 관람한 추억으로 평생 열렬한 셰익스피어 연극애



호가로 살았다. 낭만주의 시인 키츠의 런던 생가에는 그가 책을 읽던 거실 한가운데에 셰익스피어의 초상화가 벽 한가운데 걸려있다. 셰익스피어는 '작가가 좋아하는 작가'다. 19세기 영국 소설가 조지 엘리엇이 소설을 출판했을 때 빅토리아 여왕뿐 아니라 일반 독자의 호평으로 엄청난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작가가 남성이 아니라 남성 이름 조지 엘리엇을 내세운 메리 에반스였다고 고백했을 때 독자들은 실망하고 극도로 아쉬워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영광스런 별명을 주었다. '여자 셰익스피어'이다. 그만큼 셰익스피어는 독보적인 명품 브랜드이다. BBC 방송국 설문조사에서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1위라던가 셰익스피어를 식민지 나라였던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표현은 진부하고 상투적인지 오래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단 한 번의 공연으로 셰익스피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나와 셰익스피어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사이이다. 20대에 전공과목으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낱알이 해부했다. 뼈에서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어보고 찌러보고 한숨에서조차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은 내가 그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무 살의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지루하다 못해 장황하고 문맥은 언제나 틀어진 채로 어긋나고 너무 당연한 소리라서 피식 웃고 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뒤통수를 때리는 죽비 같은 깨달음이 있었다. 그는 그저 불편한 영국 작가 중의 한 명이였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푸른 수염의 남자였다. 나는 그저 빨리 학기가 지나서 셰익스피어를 졸업하고 싶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무자비한 미친 소리를 퍼붓고 돌아서면 어느새 해골을 들고 광기 어린 분노를 내뿜는다. 양손에 시뻘건 피를 묻히고 독백하는 그를 보며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갑자기 한여름 밤의 요정이 나타나 사랑싸움 해대며 우스꽝스러운 대사로 나를 살살 달래는 그를 20살



의 청춘이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우리 사이가 좁아졌다.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나갔다. 세월은 자전거 뒷바퀴에 올라타듯 달렸다. 그사이에 나는 영국에서 터전을 갖고 살게 되었다. 한국 사람만큼 영국 사람을 알게 되면서 다시 만난 셰익스피어는 달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변하자 그가 변했다. 관계의 미묘한 밀고 당김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그도 이제 나와 함께 나이 60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만난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말 놓고 막지내는 편한 친구라고 말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천천히 익어가는 와인처럼 연애하고 있다. 삶의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겪으면서 그의 한마디가, 때론 비현실적인 그의 상상이 물먹은 스펀지처럼 이해가 된다. 나이가 들수록 그가 좋다. 그와 뒤늦은 사랑에 빠진 것 같다.

부산문화회관 로비에 걸린 '햄릿' 광고 현수막을 보며 공연시간을 기다리자니 작년에 런던의 바비칸 센터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보았을 때가 생각났다. 시대 드라마인 만큼 화려한 의상에 서늘하게 아름다운 미모의 줄리엣을 기대하며 들어선 공연장이었다. 그런데 내가 만난 것은 화장기 없는 배우들의 대충 손질된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와 무릎 튀어나온 바지를 입은 내 이웃 친구들이었다. 무대부터 웅성거림이 소품은 없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이 무대 위에서 종횡무진 움직이고 있었다. 무대, 의상, 소품은 물론 대사마저 현대적이었다. 그러다가 불쑥 나오는 고전의

해박한 지식이 그 작품이 노획한 셰익스피어의 상상을 거쳤음을 알려주었다. 매력적이었다. 당연히 'NT(National Theatre) Live' 다음 작품도 기대되었다. '로미오와 줄리엣'뿐 아니라 '햄릿'도 '리어왕'도 '오델로' 같은 작품의 캐릭터들에 대한 재해석이 무척 궁금하였다. 셰익스피어가 창조해낸 캐릭터들이 1만 2천여 개라고 한다. 그들이 재창조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내 친구, 셰익스피어를 더 잘 아는 일이다.

처음 가본 부산문화회관의 내부는 공연하기에 적당하게 크고 적당하게 편했다. 햄릿과 등장인물들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가벼운 흥분에 들떴다. '햄릿'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감동한 이유는 또 있었다. 바로 햄릿 역을 맡은 배우 때문이다. 좋아하는 영국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햄릿'이었다. 위대한 작가의 위대한 작품을 내가 믿고 보는 배우가 어떻게 해석할지 가슴이 설레었다. 베네딕트와 햄릿, 둘의 궁합은 매력적이다. 창백한 피부에 굵슬머리의 푸른 눈동자에 회색빛을 띤 남자, 간혹 깊은 생각을 할 때면 두 손을 모으고 입가로 가져가는 우아한 손놀림, 그때서야 한 번 더 느끼는 그의 회고 가는 긴 손가락, 그러다 미친 폭풍처럼 분연히 일어서는 광기에 담긴 런던 악센트는 햄릿에 몰입하게 하는 장치로 충분할 것이다.

부산의 예술 공연을 사랑하고 또한 셰익스피어를 사랑하는 사람

들이 하나가 되어 대형 화면 속의 햄릿을 중심으로 함께 둥글게 앉았다. 햄릿이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날지 첫 화면이 웅성거리며 시작되었다. 화면 속에서는 런던의 관객석에서 부산하게 좌석을 찾는 관객들이 보였다. 런던 바비칸 센터의 관객석 구조를 아는 나는 더욱 화면에 몰입되었다. 중요 대사나 장면에 따라 카메라가 정확하게 잡아주니 집중도가 높아서 연극이 이렇게도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구나 싶었다. 어느 객석의 앵글에서 카메라가 잡히는 지 거기가 어디쯤인지 혼자 상상하며 보는 깨알같은 재미도 놓칠 만큼 공연은 진지하고 매혹적이었다. 영화를 보는 재미와 연극을 보는 진지함이 잘 어우러졌다. 두 매체의 장점으로 버무려진 무대의 생동감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놀랍게도 변화하는 무대 장치와 장면 전환이 관객의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햄릿’의 첫 장면은 햄릿의 첫 대사로 시작되었다. “거기 누구냐?” 셰익스피어 시대는 중세의 가치관을 고수했다. 그것은 세상은 신의 섭리에 따라 질서있고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사상이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1세의 튜더왕조와 제임스 1세의 스튜어트왕조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 역시 많이 퍼져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섭리에 대한 이 야기가 나온다. 햄릿의 첫 질문은 항상 나를 긴장하게 한다. “너, 누구냐?” “나”다. 운명 속의 “나”이다. 이제 나이 들고 보니 인생의 거미줄에도 여러 번 걸렸고 또 그때마다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칠 때마다 거미줄의 진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았다. 정말 인간이 운명을 맘대로 할 수 있는가? 셰익스피어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보여주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었다. 나는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기념한 연극의 주인공은 역시 햄릿이었고 컴버베치였다. 컴버베치는 귀에 익은 런던식 억양으로 햄릿의 그 긴 대사를 룽테어크 샷으로 한 번에 날린다. 그의 시원한 입담에 놀란 것만은 아니다.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부어 넣은 절절한 감정입이 대사에 담긴 무거운 철학을 가볍게 주무르기 때문이었다. 역시 ‘셜록 홈즈’ 출신의 배우답다. 공연 기간 내내 햄릿이 되어 살았을 배우의 피나는 연습이 있었음을 생각하면 관객으로서의 나의 열정 온도가 높은 것이 아니었다. 그만큼 광기와 분노로 길고 어려운 서사를 거침없이 내뱉으며 무대를 장악하는 그의 연기는 탁월했다. 배우의 격렬한 열정은 햄릿이라는 복잡한 인간

에 대한 깊고도 넓은 해석을 새롭게 해주었다. 햄릿은 말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사는 사람도 있고, 고통의 바다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고 맞서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들고 있던 무기를 손에서 놓고 죽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운명 속에서 관계로 존재한다. 어머니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독자로서, 관객으로서 수많은 우리의 역할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리어왕이 햄릿의 질문, ‘거기 누구냐는 첫 물음에 대한 답을 했다고 생각한다. 리어왕은 1막 4장에서 “이것은 왜 리어가 아닌가.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절규하였고 나는 그보다 더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한다. 셰익스피어에게 확인해 볼 수는 없다. 그의 묘비명이 ‘내 무덤을 건드리지 마라. 뼈를 움직이는 자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임을 알기 때문이다. 무덤조차도 건드리지 말라는데 죽은 자를 깨워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공연이 끝나고 햄릿도 나도 집으로 갈 시간이다. 5월의 부산 밤공기가 서늘하였다. 아름다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햄릿’ 공연을 음미하며 회관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로 가서 차를 한잔 마셨다. 공연장의 카페테리아는 관람객의 흠여지는 기분을 행복하게 모아준다. 공연이라는 캠프파이어의 불을 끄기 전에 맛보는 마지막 마시멜로이다. 부산문화회관이 고급문화 공연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하고 나도 관객으로 공연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 오늘 밤은 극중에 스쳐간 햄릿의 인용구를 뒤적거리며 시간을 보낼 것 같다.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이 한층 가까이 다가오는 귀갓길이었다.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VIP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1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의 첫 듀오 무대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3월 6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워 호스(War Horse)>, <리어왕 (King Lear)>
4월 24일(토), 10월 2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20매)

뉴에이지의 거장, 피아노의 음유시인
2021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5월 28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프랑스를 대표하는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프레데리크 기(Frédéric Guy) 리사이틀
6월 15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20매)

빈필과 베를린필의 매력적 만남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6월 22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은반 위에 펼쳐지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7월 31일(토) 오후 2:00, 5:00, 8월 1일(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히어로
썸머 나이트 콘서트
8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8월 28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8월 20일(금)~8월 2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민회관(회당 R석 20매)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

이정윤 안무 신작

<MOTI/어디로부터>

9월 3일(금) 오후 7:30, 4일(토)~5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XXI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9월 9일(목) 오후 2:00, 10일(금) 오후 2: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셰익스피어 고전에 대한 한국적 재해석

낭만희극 <십이야>

9월 17일(금) 오후 7:30,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선착순 R석 20매)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

흑백다방

10월 23일(토)~10월 24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선착순 R석 20매)

얼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11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재)부산문화회관&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11월 26일(금) 오후 7:30, 2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스승의 삶을 훑친 제자의 딜레마

단편소설집

12월 17일(금) 오후 7:30,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선착순 R석 20매)

성악과 기악의 정점에서 만나는 바로크 음악

조수미 & 이 무지치

12월 1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10매)

* 1인 2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Busan Cultural Center
VIP

2021-22

2021-22 BSCC
SEASON PROGRAM

(재)부산문화회관
2021-22 시즌 프로그램

b s c c s e a s o n p r o g r a m

부산을 품다 _ 세상을 잇다 _ 예술로 함께 하다

(재)부산문화회관 2020-21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연극/뮤지컬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워 호스 War Horse>

문화 | 중극장 4.2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 고전에 대한 한국적 재해석
낭만희극 <심야>

시민 | 소극장 9.17.(금)~9.18.(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
<흑백다방>

시민 | 소극장 10.23.(토)~10.24.(일)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리어왕 King Lear>

문화 | 중극장 10.23.(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잃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문화 | 중극장 11.5.(금)~11.6.(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스승의 삶을 흉친 제자의 딜레마
<단편소설집>

시민 | 소극장 12.17.(금)~12.18.(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무용/발레

은반 위에 펼쳐지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문화 | 대극장 7.31.(토)~8.1.(일)
토 2:00pm 5:00pm 일 2:00pm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
이정운 안무 신작 <MOTI/어디로부터>

문화 | 대극장 9.3.(금)~9.5.(일)
금 7:30pm 토-일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I
(재)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 컴퍼니 <A-드래곤>

문화 | 중극장 11.26.(금)~11.27.(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음악/클래식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의 첫 듀오 무대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3.6.(토) 5:00pm
R 9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B 30,000원



프랑스를 대표하는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프레데리크 기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6.15.(화)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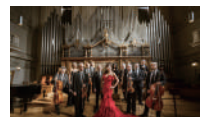
빈 필과 베를린 필의 매력적 만남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문화 | 대극장 6.22.(화) 7:3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성악과 기악의 정점에서 만나는 바로크 음악
조수미 & 이 무지치 | Musici

문화 | 대극장 12.18.(토) 5:00pm
V 140,000원 R 120,000원 S 90,000원 A 70,000원



Adieu 2021 Happy New Year 2022
2021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31.(금) 10: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오페라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
메트로폴리탄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중극장 5.1.(토) 2: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I
브리겐츠 오페라페스티벌 <리골레토>

문화 | 중극장 6.12.(토) 2: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II
라 스칼라 <아이다>

문화 | 중극장 9.4.(토) 2: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III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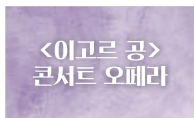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10.22.(금)~10.24.(일)
 금 7:30pm 토·일 3:0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마린스키극장 오페라단 내한 공연
<이고르 공> 콘서트 오페라

시민 | 대극장 11.10.(수) 7:30pm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IV
베를린국립오페라 <맥베스>

문화 | 중극장 12.4.(토) 2: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국악

전국팔도 핫한 탈꾼들의 제대로 보여주는 탈춤판
<가장무도>

문화 | 중극장 4.3.(토) 5:00pm
 R 30,000원 S 20,000원



압도적인 감흥, 세상 어디에도 없던 음악!
잠비나이 콘서트

시민 | 소극장 4.30.(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다원예술

미스터리 매직 퍼포먼스
<스냅 SNAP>

문화 | 중극장 5.20.(목)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콘서트

뉴에이지의 거장, 피아노의 음유시인
2021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시민 | 대극장 5.28.(금)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 20,000원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히어로
**썸머 나이트 콘서트
 Summer Night Concert**

시민 | 대극장 8.21.(토)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감동을 넘어서선 마법의 시간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28.(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가족·어린이·청소년

공연장 예술진로체험 프로그램
스쿨 온 스테이지 School on Stage

문화 | 중극장 5.26(수) 11.17(수) 10:00am 2:00pm
 All Seats 20,000원



온가족과 함께하는 판타스틱 모험의 세계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 4
시민 | 대극장 6.19.(토)~6.20(일)
 토 11:00am, 2:00pm, 4:30pm
 일 11:00am, 2:00pm
 R 65,000원 S 55,000원 A 44,000원



백희나 작가의 원작을 넘어선 감동
뮤지컬 <알사탕>
문화 | 중극장 7.10.(토)~7.11.(일),
 7.16.(금)~7.18.(일)
 평일 4:00pm 주말 및 공휴일 11:00am, 2:00pm, 4:00pm
 All Seats 50,000원(동동이석)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문화 | 중극장 9.9.(목)~9.10.(금)
 목 2:00pm 금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지역프로젝트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문화 | 시민 8.20.(금)~8.29.(일)
 평일 7:30pm, 주말 및 공휴일 3:00pm
 R 20,000원 S 10,000원



비대면 시대, 온라인으로 즐기는 배시시한 콘텐츠
배시시 프로덕션 온택트
배시시(BSCC)TV 2021년 상반기
 BSCC 온라인 플랫폼 Free Streaming



실내악의 향연, 음악의 온기를 전하다
2022 (재)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챔버홀 2022.1.18.(화)~1.30.(일)
 평일 7:30pm 주말·공휴일 5:00pm
 All Seats 20,000원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2021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_정기연주회

제57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4.(목)~1.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이경숙&김규연



제572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말리
문화 | 대극장 2.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이병욱



제573회 정기연주회
선후배
문화 | 중극장 3.1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첼로 정재윤 | 바이올린 김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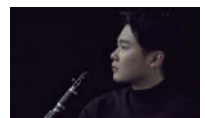
제574회 정기연주회
슈트라우스 어게인!!
시민 | 대극장 4.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임윤찬 |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제575회 정기연주회
여정
문화 | 대극장 4.30.(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바이올린 정기연주회 오디션 합격자



제576회 정기연주회
열정
시민 | 대극장 5.27.(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클라리넷 김한



제577회 정기연주회
프랑스식 뉘앙스
문화 | 대극장 7.1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아드리앙 페뤼송



제578회 정기연주회
합창

문화 | 대극장 9.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소프라노 박은주 |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국윤중 | 베이스 장세종 |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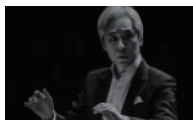
제579회 정기연주회
스키

시민 | 대극장 10.14.(목) ~ 10.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조진주



제580회 정기연주회
모차이름

문화 | 대극장 11.4.(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피아노 김대진



제581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안

문화 | 대극장 11.2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피아노 홍민수



제582회 정기연주회
시작 아니면 끝

문화 | 중극장 12.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최희연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부산시립교향악단_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1.12.(화) 7:30pm
All Seats 5,000원



제76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시민 | 대극장 2.18.(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중극장 3.10.(수) 7:30pm
All Seats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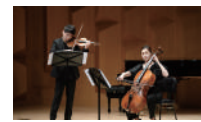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II

시민 | 대극장 4.1.(목) 7:30pm
All Seats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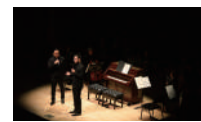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

문화 | 챔버홀 4.1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

문화 | 중극장 5.7.(금) 9:00pm
All Seats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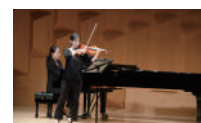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V

시민 | 대극장 5.25.(화) 7:30pm
All Seats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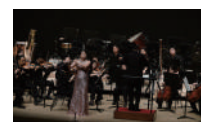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I

문화 | 챔버홀 7.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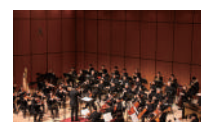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친구

문화 | 대극장 8.10.(화) 3:30pm 7:30pm
All Seats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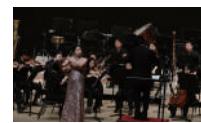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I

문화 | 중극장 8.27.(금) 9:00pm
All Seats 10,000원



제77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9.30.(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V

시민 | 대극장 10.12.(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III

문화 | 챔버홀 10.21.(목)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11.(목)~11.12.(금) 11:00a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III

문화 | 중극장 12.3.(금) 9:0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VI

문화 | 중극장 12.14.(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립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81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아! 나의 조국!'

문화 | 대극장 5.13.(목)~5.14.(금) 7:30pm
시놉시스, 작곡 이진실 | 지휘 이기선



제182회 정기연주회
위로의 메시지

문화 | 대극장 6.24.(목) 7:30pm
지휘 이기선 | 바리톤 이광근 |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 대규모 합창음악회
해설이 있는 현대 합창의 밤 II

문화 | 대극장 10.7.(목) 7:30pm
지휘 이기선



제184회 정기연주회
**정격연주기법에 의한
헨델의 메시아 대연주회**

시민 | 대극장 12.9.(목) 7:30pm
지휘 이기선 | 반주 카메라타안티카(고음악 전문 연주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강혜정 | 알토 양승미 | 테너 조성환 | 베이스 박홍우



부산시립합창단_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1
새날을 꿈꾸며

문화 | 대극장 3.4.(목) 7:30pm
객원지휘 이상길



가요합창음악회
2021 Summer Fantasy

문화 | 대극장 7.22.(목) 8:00pm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10.25.(월)~10.28.(목) 6:00pm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외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2
Healing for you

문화 | 대극장 11.9.(화) 7:30pm
객원지휘 이수은



부산시립무용단_정기공연

제83회 정기공연
한국춤 명품 컬렉션 '본색'

문화 | 대극장 5.27.(목)~5.28.(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윤



제84회 정기공연
춤 '동백, 부부'

문화 | 대극장 11.18.(목)~11.19.(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정기연주회

제209회 정기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
 문화 | 대극장 3.18.(목) 7:30pm
 지휘 김종욱



제210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문화 | 중극장 6.10.(목) 7:30pm
 집박 김수일



제211회 정기연주회
국악칸타타
 문화 | 대극장 9.8.(수)~9.9.(목) 7:30pm
 지휘 김종욱 | 작곡 김은혜



제212회 정기연주회
명인·명창·명가의 무대
 문화 | 중극장 10.21.(목) 7:30pm
 지휘 김종욱
 판소리 박성희, 정선희 | 태평소 김경수
 가야금 송영남, 하지희
 ※ 대통령상 수상자 무대



제213회 정기연주회
2021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28.(화) 7:30pm
 지휘 김종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특별연주회

2021 신년음악회
신춘다례연(新春茶禮宴)
 문화 | 대극장 2.3.(수) 7:30pm
 지휘 김정수 | 행다시연 (사)한국차인연합회 부산지원
 처용무 부산시립무용단 | 시조 이아미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4.22.(목)~4.23.(금) 7:30pm
 지휘 김정수, 김종욱
 해금 서은영, 안은경, 김준희, 윤해승
 가야금 박수은, 오해향, 윤경선, 최미란



스타 프로젝트
두개의 바람 二風異流
 문화 | 중극장 7.8.(목) 7:30pm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11.(수) 7:30pm
 지휘 김종욱
 노래 박성희 | 태평소 김상연 | 가야금 김혜진



제4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11.24.(수) 7:30pm



부산시립극단_정기공연

제69회 정기공연
 문화 | 중극장 4.9.(금)~4.11.(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 '가족에게, 가족으로부터'를 콘셉트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객원연출가의 무대



제70회 정기공연
벚꽃 동산
 문화 | 중극장 7.1.(목)~7.3.(토)
 평일 7:30pm 토요일 5:00pm
 원작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 객원연출 강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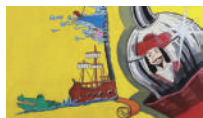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및 제71회 정기공연
찰스 디킨즈 '크리스마스 캐롤'
 문화 | 대극장 12.23.(목)~12.24.(금) 7:30pm
 원작 찰스 디킨즈 | 각색/작사/연출 김지용
 지휘 이기선 | 안무 이정윤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출연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극단_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제1기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8월 중(시간, 장소 미정)
 원작 제임스 매튜 베리 | 대본, 작사 강보람
 작곡 전현미 | 연출 김지용



안데르센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9.28.(화)~10.23.(토) 11:00am
※ 일요일 공연 없음
원작 안데르센 | 연출 김지용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 정기연주회

제159회 정기연주회 날으는 양탄자

문화 | 대극장 5.29.(토) 5:00pm
전석 2천원
지휘 김수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 정기연주회

제65회 정기연주회 화려한 전성기, CLIMAX

문화 | 대극장 3.19.(금) 7:30pm
전석 2천원
지휘 이명근 | 협연 피아노



제160회 정기연주회 부산에 부는 바람

문화 | 대극장 9.11.(토) 5:00pm
전석 2천원
지휘 김수현



제66회 정기연주회 노련함, VETERAN

문화 | 대극장 9.24.(금) 7:30pm
전석 2천원
지휘 이명근



제161회 정기연주회 Merry Christmas in Love

문화 | 대극장 12.17.(금) 7:30pm
전석 2천원
지휘 김수현



제67회 정기연주회 및 2021년 송년음악회 겨울...차이콥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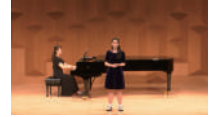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12.2.(목) 7:30pm
전석 2천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 특별연주회

향상음악회

문화 | 챔버홀 2.19.(금)~2.20.(토) 7:30pm
무료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 특별연주회

2021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중극장 5.21.(금) 7:30pm
전석 2천원
지휘 이명근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11.5.(금)~11.6.(토) 7:30pm
무료



2021 렉처콘서트

문화 | 대극장 8.12.(목) 7:30pm
전석 2천원
지휘 이명근



청소년 실내악의 밤

문화 | 챔버홀 10.23.(토)~10.24.(일) 5:00pm
전석 2천원
지휘 이명근



2021-22 BSCC SEASON PROGRAM

부산시립예술단
2021 시즌 프로그램

부산을 품다... 세상을 잇다... 예술로 함께 하이다

01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 출연 인원 200여 명!! 부산시립 예술단 브랜드공연 탄생 예고
- 인종과 종교, 국적을 떠나 전 세계 적으로 사랑받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 극단, 합창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6개 예술단이 선보이는 대형무대



02

부산시립예술단의
스타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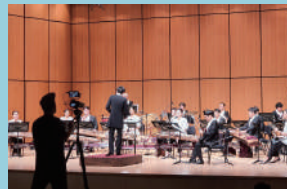
-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예술단의 숨은 스타를 알리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
- 2021년 새롭게 선보이는 스타프로젝트, 그 주인공을 찾아주세요.



03

유튜브
부산시립예술단TV를 통한
온라인 공연 강화

-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 지난 공연 다시 보기 명품무대를 유튜브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4

미래관객들을 위한
부산시립예술단의
예술교육공연

-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감상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 공연이 펼쳐집니다.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와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 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원(50매)	300만원(30매)	100만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지 <예술의 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의 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학교 총장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박성복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승모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신명희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상현 리더스금융판매 워드컨설팅 대표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현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성임 엘가 대표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정일 SK증권(주) 이사
임은자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영희 (전)국회의장
정의화 숙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충영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진경옥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허 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현임숙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예술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대극장 좌석 네이밍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원

구분	후원 금액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이사 회원	500 이상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1회 무료 (연간)	2개 좌석
	3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2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전시,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사용 등은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
-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김홍재(010-3560-2511)

DONG MIN LIM DONG HYEK LIM DUO RECITAL

200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한국인 첫 입상의 주인공, 임동민 & 임동혁 형제의
첫 피아노 듀오 무대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슈베르트 네 손을 위한 환상곡 D.940 | 라흐마니노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Op.17 | 라흐마니노프 교향적무곡 Op.45

2021.3.6 SAT 5:0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10% Discount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선불카드
(\$100 이상 구매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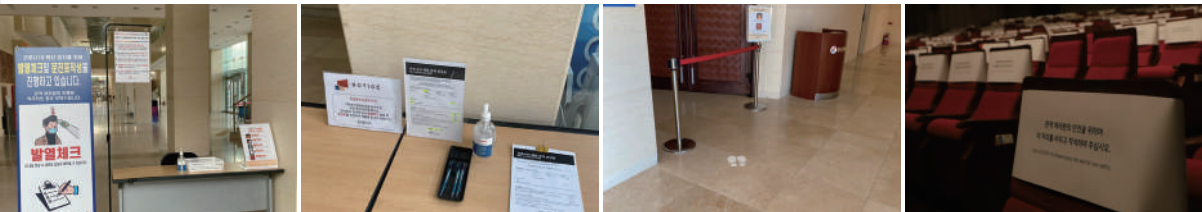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 부산문화회관 공연장

이용수칙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한 공연장 이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관객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공연장 입장 전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시 공연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개인 마스크를 필히 착용 후 방문해주세요.
- ✓ 티켓을 직접 절취하신 후 티켓의 왼쪽 부분(또는 작은 쪽 부분)을 수표함에 직접 넣어주세요.
-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객석'에 맞게 지정된 좌석에 착석바랍니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1. 1.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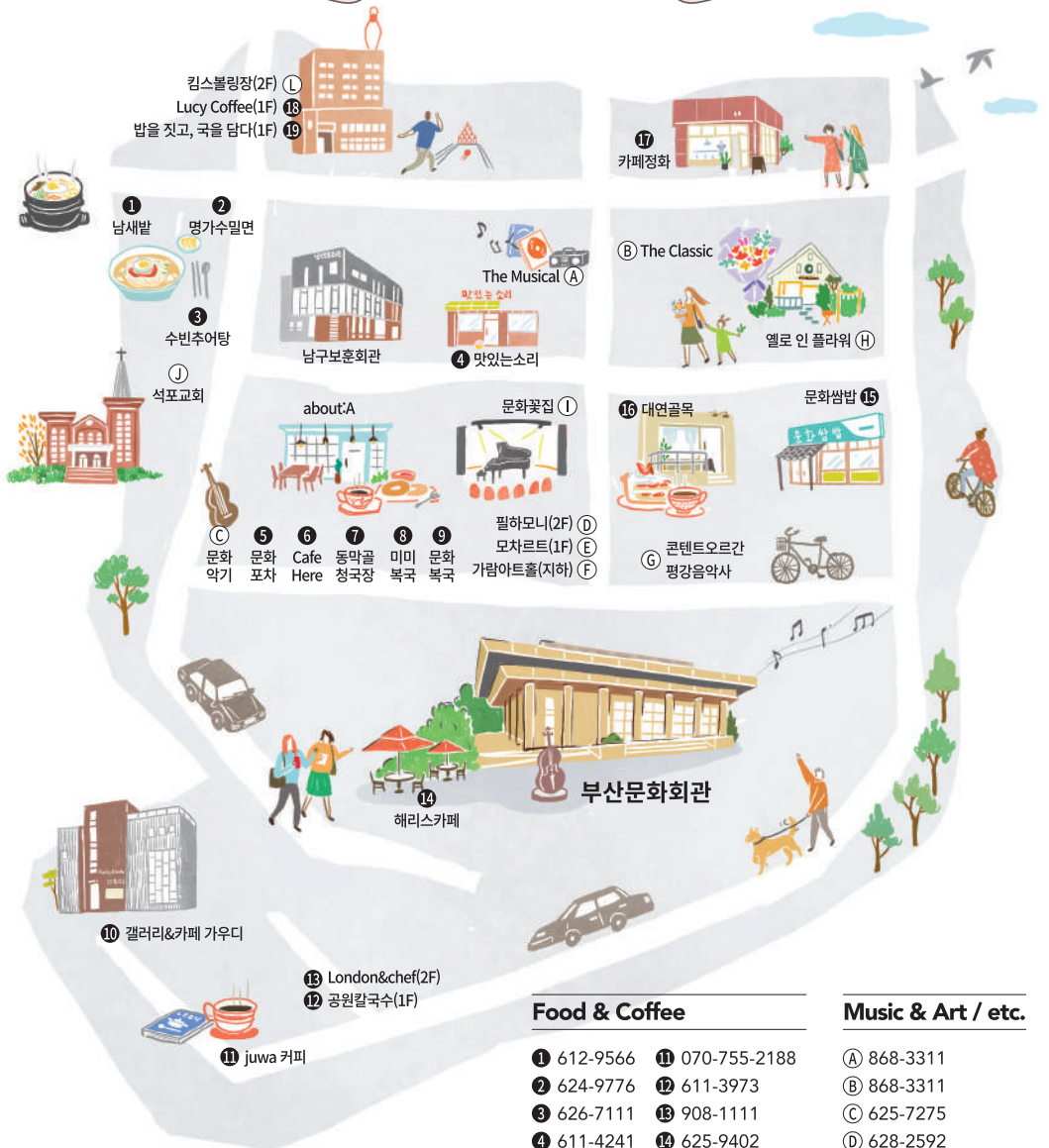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1 612-9566
- 2 624-9776
- 3 626-7111
- 4 611-4241
- 5 626-4448
- 6 622-7412
- 7 611-3589
- 8 628-8009
- 9 621-7040
- 10 621-5788
- 11 070-755-2188
- 12 611-3973
- 13 908-1111
- 14 625-9402
- 15 626-2292
- 16 010-3996-6498
- 17 623-0772
- 18 628-3832
- 19 714-3559

Music & Art / etc.

- A 868-3311
- B 868-3311
- C 625-7275
- D 628-2592
- F 622-1456
- G 621-6669
- H 626-7900
- I 080-337-3370
- J 622-9722
- L 625-8704

COUPON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정식 1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대연스포츠타센터 킹스볼링장 1층
051)714-3559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50
051)513-4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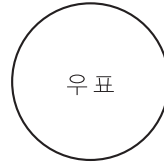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받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INVITATION TO THE ARTS
2021 1 JANUARY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